



여리고 성은 기도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박진호 지음

왜 오직 예수인가
<http://whyjesusonly.com>

여리고 성은 기도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박진호 지음

왜 오직 예수인가?

(www.whyjesusonly.com)

차례

들어가면서.....	1
여호수아의 기도로 여리고가 무너졌다.....	7
육십만 개의 무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21
여리고 주민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35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48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61
신세대의 할례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75
유월절 제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89
여호와의 사자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103
목숨을 건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117
하나님의 뜨개질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131
에필로그	144

들어가면서

오래 전 서울강남 중심지에 있는 불교사찰 봉은사를 신자들이 줄지어 돌면서 절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을 주도하는 선교 단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또 교회 단기선교 팀들이 중동의 회교사원 주위를 돌며 “땅밟기 기도”를 하여 현지인들의 반발을 샀던 적도 있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를 목적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동일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불신자나 타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반발만 더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에서 성 주변을 줄서서 돌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튼튼했던 성을 일시에 무너트리는 기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땅 밟기 기도’는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 적용한 데에 기인합니다.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에 감사했는데 그 고백을 잘못 해석한 것도 땅 밟기 기도의 정당성 강화에 일조했습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수 14:9)

우선 갈렙이 가나안 전투 전부를 회상하며 한 말이므로 여리고 전투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했으므로 훨씬 오래 전에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를 비롯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출애굽 여정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론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야에서 열 명의 정탐꾼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한 데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구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민 13, 14 장)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신 1:36)

그 때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군하자고 설득한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성령이 모세의 입을 빌려 예언했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자기에게 예언해준 이 말씀을 회상한 것이었지 자신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방 땅에 객이 되어 있던 동족을 구출해 내어서 아모리 족속들의 땅으로 진군시켜야 하는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창 15:13-21)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해준 말씀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함께 소유가 늘어난 조카 롯과 한 목초지에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됩니다.(창 13 장)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 13:14-17)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완전히 먼저 양보했으며 자신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든지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롯이 물이 많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방으로 눈에 보이는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

즉, 그 땅을 밟으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후손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신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 전부를 당신께서 주실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갈렙의 고백에서나, 모세의 예언에서나,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땅 밟기 방식의 기도가 특정지역을 전도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도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온전히 따르는 신자에게 그에 합당한 당신만의 과실을 맺게 해줄 뿐입니다.

특정 방식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기도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쳐도 세상 어떤 존재와 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 형식에 따라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면 누구라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기도(祈禱)가 아니라 주문(呪文)입니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응답을 잘 받는 특정한 기도 방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런 류의 가르침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내용부터 순전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땅 밟기 기도가 잘못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어둠의 영적세력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한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려면 땅을 밟으면서 합심해서 뜨겁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사탄이 공중권세 잡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했습니다. 특정지역에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땅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상숭배나 이단종교가 유달리 성행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대속 제물로 바쳐져 사탄에게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복음이 아직 순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7)입니다. 마귀는 추악한 거짓의 아비인지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거룩한 진리 앞에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흑암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계 19:13-15)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무시(無時)로 성령 안에서 기도”(엡 6:18)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자의 일 년 365 일 하루 24 시간 전부가 영적인 싸움이므로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는 자로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에 의존한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본질적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형식 또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본질보다 앞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무엇보다 땅 밟기 기도는 살펴본 대로 관련된 성경말씀의 해석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말씀의 의미와 어긋나는 기도이므로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땅 밟기 기도의 성경적 오류는 상당부분 바로잡아졌습니다. 서두에 예를 든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 때문에 신자들도 땅 밟기 기도에 대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땅 밟기로 무너졌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작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승리의 요인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훨씬 역할이 더 컸던 승리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습관이 거의 모든 신자에게 없습니다. 한 사건만 따로 떼어서 보거나 심지어 한 문장, 한 문구, 한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치명적으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선 성경을 통해 신자들에게 계시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온전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기록된 본문 자체의 의미조차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 일 간 침묵의 행진을 함으로써 기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 왜 여리고 성에서도 한번도 응전(應戰)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침묵만 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한 경과만 기록한 본문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너무나 오묘하고 풍성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신자가 세밀하게 여러 번 정독하지 않으면 그 오묘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도 앞뒤로 연결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해보면 깊이 따져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믿음은 쉽고도 단순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만 믿고 따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발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모르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진리만 알고 치우려면 구태여 성경을 일일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황과 그 등장인물들의 믿음과 행위들이 각각 다르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권능 또한 각기 다릅니다.

아들이 학업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단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해선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여자 친구가 생겼는지, 친구들과 휩쓸려 나쁜 짓을 하는지, 특정 과목만 싫어하는지, 오히려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등등을 잘 관찰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개별적 원인이 다 다르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다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독려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태여 깊이 따질 필요 없이 순종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소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 나아가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았더니 최소 열 가지 승리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숨겨 놓은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찾아낸 것인지라 여전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극히 일부, 그것도 겉핥기에 불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일부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헤쳐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 근교에서 6/20/2020

여호수아의 기도로 여리고가 무너졌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1-9)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전투는 칼과 창을 사용하는 일상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 주위를 줄을 지어서 돌기만 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해줌으로써 아무런 희생 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6 일 동안은 한 번씩만 돌다가 마지막 7 일 때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성이 일시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수 6:20)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많이 시행합니다. 전도나 선교하러 간 지역의 땅을 밟고 걸으면서 사탄에게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신축할 때에 필요한 땅이나 건물 주위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개인이 자기 집을 사고 팔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간절한 동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순전한 형식에 담아서 반드시 겉으로 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례를 따라서 행하면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 전투에 내포된 너무나 풍성한 의미는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순히 땅을 밟는 기도가 응답을 잘 받는 방식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가르쳐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또 여리고 성 전투가 오늘날의 신자에게 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나의 종 여호수아.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만의 특유한 어법(語法)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어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만 잘 살펴봐도 여리고성 땅 밟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특징은 모든 말씀의 주어가 '내'라는 일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주격으로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의 종이라는 소유격 표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네 평생에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보호 인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여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출 17 장) 가데스바네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진군하자고 주장했고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입경할 수 있었습니다.(민 14 장) 총회로 모이라는 모세의 명을 어기고 장막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중지시키자고 간언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민 11 장) 무엇보다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의 시종으로써 모세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기적의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엔 여호수아가 가장 적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만큼 백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부터 상당한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나이가 팔십이요, 바로의 왕자로 있었고, 동족을 위해 애굽 관원을 죽인 공로가 훈장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지내면서 애굽 밖의 세상과 특별히 광야생활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지녔습니다. 동족들 사이에 장로의 위치에서 신망을 얻고 있었던 형 아론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체험했기에 그가 하는 말에 진정성과 신뢰성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과 회막에서 직접 교통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매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계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뤄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큰 이적들이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멸당할 큰 죄악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건지는 은공을 두 번 받았습니다. 성경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지금껏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행했지 직접 자신이 자기 책임 하에 지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팔십 줄에 들어서 신체적으로도 노쇠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리는 없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 원망 불평할 것입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에게 일대일로 나아가 중보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했던 사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해줄 것인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모세처럼 친밀히 대하면서 직접 교통해줄지 여부였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인정해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라는 주어를 사용한 것은 여호수아와도 모세처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서 직접 말해주는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동일한 자격과 신분에서 당신의 권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하겠다고 당신께서 일곱 번도 넘게 계속 강조해준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팔십에 스승이나 선배 한 명 없이 갑자기 당신의 종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소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부터 모세 곁에서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으니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주겠다는 뜻입니다. 당신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얼마든지 모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가나안 대적이 아낙 자손처럼 커보여서 두려워지거나,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해서 낙심되거나, 그들이 혹시라도 불순종하여 승리가 더디거나 패배해 화가 나더라도 절대 절망 내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대했던 전임자와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미래

하나님은 또 그들이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4 절)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어떤 위험과 문제에서도 구출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당신의 일을 수행할 당신의 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오직 당신의 백성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합니다. 지금 내라는 주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도 당신의 아집과 욕심을 채우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5 절) 그 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진리를 선포한 후에 그 진리가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양 치던 지팡이만 든 팔십 노인 모세에게 세계 최강국 애굽이 열 한 번이나 대적하려 들었지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는 애굽에 비하면 시냇말로 새 발의 피밖에 안 되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야에서 가나안 지경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지라 사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왕에 가진 굳건한 믿음 위에 더욱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중에 아마도 이만큼 위로가 되는 약속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3 절)라고 합니다. 이 진술에 문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발로 밟아야 할 일은 미래에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은 하나님에겐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고 단 한 치라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이뤄질 약속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어법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신자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강해할 때에도 한 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1,12 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로 서야할 일이 두려워서 망설이자 하나님은 그 확정적인 증거로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예배드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 예배는 출애굽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출애굽 자체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를 보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소지한 하나님의 종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든, 이방주술사 발람이든, 지금 가나안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이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할례 없는 족속을 두려워 말라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렸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포했습니다.(삼상 17:47)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열서너 살의 소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치를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렸지 않고 하나님이 확보해 놓은 승리의 열매를 따는 것일 뿐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온 어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본문의 2 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앞둔 심각한 시점입니다. 마치 이웃 동네에 놀러가듯이 내가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오래 전부터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마련해 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3 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가나안의 소유에서 너희의 소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이라곤 그냥 건너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첫 전투인 여리고 성 주변을 이스라엘이 발로 밟기만 하면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뜻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사백 년 전에 선조 아브라함과 죽음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손들은 그 언약 하나만 소망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사백 년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꿔 말해 여리고성 함락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성 주변의 땅을 밟으며 칠일 간이나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을 밟은 것 하나 빼고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때가 되자 당신의 방식으로 그냥 이스라엘에 질 선물이 실현된 것이며 이스라엘을 그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에서 인간 쪽에서 특정한 방법을 시도해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의 응답까지 포함해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역사하실 뿐입니다. 본문이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면 여리고 성 승리의 공은 백성들보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서 배울 기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들이 그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고 또 그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처음 당하는 일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심지어 이미 경험한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할 때도 두렵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통쾌한 승리에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보다 하나님이 확정된 미래로 계획해 놓았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4 절)로 구획정리 해놓으셨습니다. 여리고는 그 지경 안의 작은 한 성일 뿐입니다. 그 성 하나가 하나님이 다 그려놓은 지도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한다고 제외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신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도의 의미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끈질기게 땅을 밟으며 자기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이 확정하신 미래,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계시 받은 뜻이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두고 순종 성취해야 할 그분의 과업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긴 그분의 소명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자기를 통해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와 그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은 물론 고난에 대해 먼저 중점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길 비는 말로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비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평생 소명이 확정된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열악한 오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의지해야 할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형통과 풍요를 빌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풍토병이나 종교적 핍박으로 언제든 목숨이 날아갈 수 있음도 각오했습니다. 목회자들도 평생을 개인적인 욕심과 안일은 뒷전이고 오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만 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소명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확정된 미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계시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부활 승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라는 비전을 다 주셨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지향하며 그곳으로 걸어가는 일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고달픈 인생살이와 죄악으로 타락한 인산세상을 이별하고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하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니 사역자들부터 연약한 본성을 지닌지라 매번 순전한 천국지향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미성숙하므로 자기가 소원 계획하는 일은 무엇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치울 것이 아니라 기도 전후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라도 자기가 소원하는 일을 통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는지, 이웃과 성도와 그분의 공동체의 영적 유익과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세밀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기도한대로 행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기생충 영화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결말이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화를 본 자들은 절대로 그 결말을 다른 이에게 누설해 영화 보는 재미를 스포일(spoil)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모르고 보는 자와 알고 보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추리나 공포 영화는 처음 볼 때는 매 장면마다 스틸이 넘치고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가슴 졸이며 두려울 것입니다. 감독과 원작자가 곳곳에 숨겨 놓은 복선이나 힌트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그것들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더 깊은 재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결말을 알고 보는 자는 전혀 두렵지 않고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숨겨진 복선과 힌트들이 훤히 보일 것이며 감독과 원작자의 의도를 세밀히 깨닫고 영화를 정확히 평가할 것입니다. 어쩌면 감독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관객이 오히려 더 큰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일생이 그러합니다. 이미 천국이라는 확보된 미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소지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현실에선 고달픔과 환난으로 점철되는, 그것도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최후의 도착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는 것처럼, 다시 봐도 장면에 따라 여전히 무서워지듯이 고난이 닥치면 힘들어도 자신의 삶 전체로는 두렵지 않아야, 최소한 평강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 놓은 복선을 발견하고 그분의 오묘하고 은혜로운 의도를 깨달아 더 풍성하고도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육신의 죽음을 눈 앞에 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4:10-14)

바울은 평생의 목표와 비전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선 아직 이룬 것이 아니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겪었어도 심지어 죄에 넘어져 쓰러졌어도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16 절)고 즉 궁극적인 쫓대를 향해 걸어갈 뿐인데 현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갈 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천국이라는 정답을 받아 주고 있기에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웠기에 자기 고난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고후 11:28,29)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대로 아그립바 왕에게 재판장에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체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행 26:29)

한마디로 왕도 자기처럼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슬에 결박된 것 하나 빼고는 자기처럼 되라고 합니다. 내가 왕보다 못한 것은 사슬에 묶인 것 하나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 봐도 모든 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복을 받았으니 내처럼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정답을 나는 받았고 당신은 못 받았으니 반드시 그 정답을 받아서 허망하게 심판 받는 형벌이라도 제발 모면하라고 간절히 당부한 것입니다.

아그립바는 헤롯 가문의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하듯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데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권면합니다. 그는 천국 승리를 보장받았기에 아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아그립바 왕의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는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어린 사랑이 통했는지 아그립바는 너에게서 사형당할 죄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바로 놓아주었을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세대가 되어라.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타 민족의 오랜 노예 살이에서 해방되어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그 새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정답도 이스라엘의 새 세대의 손에 지워졌습니다.

모세는 구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새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을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의 세대는 차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 즉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들은 여호수아와 새 세대가 차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죽음으로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됨을 예표합니다. 마침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즉, 예수의 유대 식 이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흑암의 땅을 이제부터 여호와 참 하나님을 아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씩 정복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고 그 가장 손쉬운 시작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후 아이성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은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사탄의 도성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의해 점령당하는 천국 확장의 역사입니다. 순전한 복음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전해지면 반드시 열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앞에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에겐 확보된 미래가 있기에 시대와 장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대적할 가나안 족속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서인 셈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 평생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틀어질 리도 없습니다. 물론 본성이 연약하고 체질이 진토 같아서 때로는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잠시 주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본문은 당신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면 그 땅에 거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신학적으로 진보나 보수 양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정답을 소지한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두려워서 좌우로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보된 미래로 이미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과 방향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이미 받은 소명에, 최소한 천국에 대한 비전에 평생을 걸고 있기에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이웃이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농간 조종하는 사탄도 한 걸음으로 왔다가 일곱 걸음으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신자라면 아그립바 왕 같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하나 들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져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궁핍해도 그것만 빼고 나같이 되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입는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본문에서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위로했듯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샘솟듯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확보된 미래가 여리고 성이 함락된 첫째가는 이유와 근거와 방식입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현실적 정신적 영적인 장애물도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확보된 미래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 거한다면 말입니다.

육십만 개의 무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수 1:10-11 & 16-18)

구세대와 판이하게 달라진 신세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자기를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인정해줄지가 염려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운 종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동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평생에 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본문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내린 지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 또한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17 절)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다 행하고 보내는 곳에 다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에게 수시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불순종했던 아버지들 세대에 비해 상당히 발전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이 성 전투 때에 여호수아가 만류했음에도 고집을 세워서 올라간 일 말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 큰 어려움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 전투인 여리고 성에선 상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방식임에도 한마디 반론은커녕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여호수아서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음이 첫째 원인이라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일입니다. 현실에선 신앙생활도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책임 하에 분별 판단 결정 시행 평가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를 잘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신자와 평생토록 동행 해주심은 마치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태여 요청 내지 의식하지 않아도 그분은 함께 해주시고 신자를 떠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 신자들이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간구만큼 틀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자와의 동행은 한 순간도 떠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신자에 대한 당신의 주권적 계획을 신자의 순종과 관계없이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신자에게 매를 들더라도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신자가 정작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기 인생에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 되게 작용되게 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벌을 주시지는 않으나 그 인생에 결코 참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니 아무리 기도한들 여전히 자기 혼자서 고달픈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바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세대처럼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결말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았고 나의 불행을 방관했다는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끝나도 단지 수동적으로 패배만 면한 꼴입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적극적 주도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평생 가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7 절) 그분의 계명을 다 지키는데 그분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 해주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 순간 호흡해야 하듯이 신자가 매순간 신자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요컨대 말씀과 기도가 서로 떨어져선 안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주변 여건에 질질 끌려 다니는 초라한 모습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육십만 번의 장례식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의 나이도 많게는 60 살이 되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군대징집 연령인 20 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후 사십년이 지났으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의 신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합니다. 귀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풍요를 누리다가 죽었다면 억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그랬다면 자식으로서 불효했다는 죄책감도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자기들이 불평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 먹고 싶은 것이라도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무미건조한 만나만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십 년간 너무나 무료하게 그저 생명만 연장하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곤 먼저 죽은 자들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들도 얼마 안 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펐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부 개척 영화를 보면 비옥한 새 땅에서 목장을 지을 꿈을 안고 서부로 향해 가다가 인디언 습격을 받던지 병에 걸려 누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묻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체할 수 없어서 장례식을 격식차려 치를 여유마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다시 찾아와서 제사나 예배를 드릴 기약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땅에 간단히 묻고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버려두고 바로 떠나야 하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사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무와 풀은커녕 물도 없고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광야에 그냥 파묻어야 합니다. 성막 위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언제든 부모님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하는 자식 세대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민수기에 따르면 군대에 나갈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숫자가 약 육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광야 방황 기간 동안에 육십만 번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돌무덤만 육십만 개 남겨두었다는 것이 평생 노예로 살다가 구원 받은 이스라엘 모든 기성세대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이보다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나서부터 어른이 되도록 목격한 일이라고는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벌을 받아 죽어가는 모습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로선 여호와와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정말로 죽음의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철두철미 뇌리에 박혔을 것입니다. 육십만 번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실행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새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만나와 생수로 넉넉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막고 밤에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서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에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광야만 오갔기에 도적 떼들이 감히 넘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의 최고로 영험한 주술사 발람의 저주도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당신께서 혼자서 다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특히 모세와 관련해서 크게 깨달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노예 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어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사십 년 넘도록 발이 부르츠지 않게 하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 모두를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불같은 저주를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여 두 번이나 심판을 모면케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마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말로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 아버지들과 함께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공로를 생각하면 큰 기념관을 지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육십만 개의 무덤과 똑같이 비석 하나 없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광야의 돌무덤으로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종으로 천국 보좌의 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약 1500 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죄인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야만 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이기에 육십만 죄인들의 무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묻혔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상응한 징계 혹은 벌을 받는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신세대에게 엄위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고, 그 후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무덤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세대들로선 모세마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변했는데 자기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함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당부가 신세대들에겐 진짜로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고 부모를 광야에 묻었을 때, 또 모세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소름이 끼치는 경외감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사흘 치 만나를 모으라.

신세대들은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40 여년을 수종하는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들로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에 크게 안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로서 첫 업무를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차비를 갖추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삼일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것이니 양식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는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5:12 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고 말했으니 여전히 만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삼일 동안 모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백성 중에 욕심을 내어서 다음 날 먹을 만나까지 모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출 16:20) 여호수아만큼 그 사실을 잘 아는 이가 없습니다. 신세대도 부모들에게 그 일을 전해 들었고 또 매일 만나를 수거해야 하니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계시 받은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그 말대로 실현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만나 사흘 치를 모으라고 말한 뜻은 사흘 후에는 광야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지긋지긋했던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즐겁게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나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내려주었고 삼일 분을 모아도 전혀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어긋날 리도 결코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일이라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첫 지시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됨에 전혀 부족함에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충성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16 절)

바꿔 말하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세대들은 단순히 만나를 삼일 치 모으라고 하는 본문의 지시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받은 성 주위를 돌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여리고 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고 백성들은 뒤따라 행진하라고만 했습니다.(수 6 장)

요컨대 그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죽음으로 맹세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바로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는데 자식들이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선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이 신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셈입니다. 한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경우에도 불신자 부모와 선조들의 희생이 어쩔 수 없이 따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세대들이 믿음으로 행할 바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따르는 것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두려워말라고 세 번이나 당부했는데(6, 7, 9 절) 특이하게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라”고 해야 이

상황에 적합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져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진군의 명령이니까 같은 뜻이지 않느냐고 치부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주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당신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마음을 담대히 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하여서 승리하라고 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원인이 신자에게 달렸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정미하고 온전한 의미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면 담대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7 절) 온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으므로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위급한 고난과 문제만 해소시켜주면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겠다고 너무나 자주, 아니 매번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따져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는 지를 말입니다. 그저 풍요함을 즐기기 바빠서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신자에게 고난과 문제를 이기기 위해선 구태여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믿음이 강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집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봉사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정작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보려 할 때입니다.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은 교육과 훈련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주저함이나 부자연스러움 없이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일은 모든 신자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말씀을 지키는 일에 두려워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경건하고 신령한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지어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을 띠 때도 있습니다. 구세대들도 가데스 바네야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어서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과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한 이유는 알다시피 아낙 자손이 너무 장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자들이 잡혀갈 것이 두려웠고 자기들 소원대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노예근성에 젖은 데다 연약한 믿음의 이스라엘인지라 이해해줄 만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결핍된 것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담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적인 대로 하나님 명령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면 하나님이 승리해줄 것을 확신했을 것이고 그럼 담대하게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진다, 나아가 당신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한 일이라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세대들은 출애굽 후 그 때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경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에서 넘칠 만큼 믿음의 연단을 이미 거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었어도 조금 치사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밀쳐야 본전이므로 일단 한번 따라하는 보자라고 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와 구세대들이 벌써 사십 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사상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자기들이 봐도 믿음이 너무 빈약하고 치사해도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했습니까?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 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첩 하갈이 아들을 낳고 기고만장하는 대로 놓아두었다가 아내 사라에게 이전에 잘못된 일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크게 혼 줄이 났습니다.

엄밀히 살피면 그에게서 믿음의 조상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곤 그리 없습니다. 불가능한 줄 알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 했고 또 첩에서 자식을 얻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도 나중에는 다른 수가 없으니 밀저야 본전이니 믿어보자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는 인생 말년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 이삭을 아무 주저나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동안 자기 삶에 간섭하셨던 모든 차원에서 결국에는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에게 유익했다는 것을 자신의 여러 실패한 경험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그분의 결말이 훨씬 더 좋음을 알려면 당연히 자기는 실패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기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려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는 기근을 만나자 본토 같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친척인 조카 롯의 동행을 허락했고, 자기 집안도 아비들이 살았던 모습대로 일부다처제를 수용했습니다.

그가 나름의 최선의 결정이라고 선택했던 일들이 전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야 하는 큰 곤욕을 거쳤고, 조카 롯과는 목초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고, 첩 하갈은 본처의 처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셋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끔 모든 상황을 이끌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더러 당신의 명령에 순종케 하는 훈련을 당신께서 시행한 것입니다. 매번 훨씬 더 좋은 결말로 인도해서 앞으로도 항상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옳고 선하다는 진리를 확신케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일지라도 일단 하나님 편에만 서면 그분은 그 모습대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이니 가지인 신자들더러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까닭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한 순간에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이 걸리도록 천천히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조금씩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눈에 비치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순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점차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정도와 빈도와 세기가 커진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신자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한다고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오묘하며 완벽한 섭리를 분별하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야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점점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자로 수 없이 실패와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고난의 탈출만 믿음의 목표로 삼는 자는 평생을 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힘들면 기도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당장에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이해 안 되고 정 반대의 징조가 많아도 그분은 반드시 옳다고 믿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묵상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는 자만이 믿음이 자라고 그 인생을 참된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교회에서 기도와 봉사와 성경 지식에 능통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실제 삶에서 내 계획과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옳고 좋음을 체험했기에 그분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소원 욕심 열심 노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고백을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본성이 완악하고 체질이 연약한 우리 중에 온전히 기꺼이 의탁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평생에 걸친 정말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인간이 말로 가르쳐 알아먹을 존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아니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청개구리 근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에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하고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하나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 신자의 소원 노력 열정 믿음이 약한 때문이 아닙니다. 꼭 순종해야 할 필요 이유 목적 특별히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소원을 기도해서 이루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뿐이라는 절박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 것도 몰라도 무조건 그분께 맡기는 것이 순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매번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에게겐 차선, 아니 실질적으로는 최선의 믿음임은 분명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백성들이 기도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사십 년간 육십만 개의 돌무덤을 쌓다보니 그런 의미 없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첫째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는 순간 처절한 실패 절망 죽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했다면 삶에 허망하고 갈급함만 생기지 기쁨과 승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날마다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나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고난만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선 오히려 지금껏 경험했듯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만 여리고 성 전투 같은 통쾌한 승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수 2:8-11 & 23,24)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에게 그랬듯이 그를 통해 전해질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취임식을 마쳤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할 대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보장했어도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므로 구체적인 전투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우선 정탐꾼을 두 명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내었다고 합니다.(1 절)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비밀리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한국속담이 있듯이 정탐꾼이 많으면 의견이 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혹시라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백성들이 동요할 수도 있으니 자기에게만 먼저 은밀히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겐 가데스바네야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의견이 나뉘져 처절하게 실패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벌로 사십 년간 광야를 방황하다 죽는 모습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야 사건이 그에게 분명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

어떤 전쟁이라도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전략은 넓은 지역의 전쟁 전부를 통괄하는 장기적 계획이고 전술은 제한된 지역의 개별 전투에 대한 일회적 방안을 말합니다. 그가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를 엿보라”고(1 절) 지시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 전부를 정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전체 지리와 형세는 이미 열두 명이 자세하게 정탐했었고 사십 년이 지났어도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열 명의 보고도 사실 그대로 정확했습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했고 가나안 족속들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체 전쟁에 대한 전략은 이미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한반도의 중간지역을 확보했습니다. 북한군을 남북으로 절단하여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가나안 중간으로 들어가서 남북으로 나눔으로써 그 땅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수여 받고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서약한 후에 가나안으로 진군해 처음 당도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선 가나안을 남에서 북쪽으로 종단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 비해 자기들이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그 별로 사십 년간 방황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은 이제 신세대들로 그곳을 우회시켜서 요단 동편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선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서로 횡단해서 중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신세대마저 처참했던 실패를 상기하고 크게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배려해준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가나안을 향한 지름길인 해변대로에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에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출 13:17)하여 광야로 우회시켰듯이 말입니다. .

하나님이 세워준 이 전략에 따라 처음으로 치를 국지전투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의 방어태세만 잘 살펴서 단기 전술만 세우면 됩니다. 여러 명이 성 안에 몰려다니면 아무래도 쉽게 발각될 것이므로 판단력이 뛰어나고 담대한 믿음을 지닌 심복 두 명만 보낸 것입니다.

실패한 정탐?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행한 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것이었습니다.(1 절) 그러나 그들이 스파이인 줄 눈치 챈 여리고 군대가 잡으러 오자 적진을 제대로 정탐도 못한 채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정탐한 결과가 본문 23, 24 절인데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라고만 했고 여리고 성의 군대와 방어 태세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라곤 기생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일입니다. 그럼 정탐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선 기생 집에 머문 까닭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관을 겸한 술집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한국의 조선시대로 치면 주막 같은 곳입니다. 그 성과 주변의 최신 소식들을 수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문제는 기생 라합과 가나안 족속의 말을 통역 없이 알아 들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에 “중대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출 12:38) 그 중에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을 것인데 정탐꾼으로 그들이나 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자를 골랐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간단한 문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의심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미하고 완전한 기록입니다. 기록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반드시 앞뒤로 모순되거나 무리한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여리고 성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신자들도 있는데 바로 이 “중대한 잡 족”이라는 아주 간단한 언급이 그 사실성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깔아둔 복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장기적인 전략을 벌써 세워놓았고 이스라엘이 그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한 치의 차질 없이 당신께서 완벽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 인솔의 전문가로 사십 년을 훈련 준비시켰으며 여호수아는 사십 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백 년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세계 최강국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창성케 되는 그분만의 비결이었지 않습니까?

이 두 정탐꾼도 이 일에 자기들이 쓰임 받으리라고는 전혀 계획 기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말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여리고 성 함락에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일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신자는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지식 지혜 능력 성품 체험 무엇이든, 심지어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에 처참하게 실패했던 일까지 들어 사용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태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버지 세대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이 신세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생각과 길과는 다르고 광대하고 완전합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뿐입니다.

최고로 유용한 정보

그런데 두 정탐꾼이 대화는 통해도 아무래도 현지인들과는 그 형색과 분위기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상하게 여기고 여리고 왕에게 신고했으며 곧바로 체포조가 출동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순간적인 기지로 여리고 군인을 따돌리고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줄로 달아내려 아슬아슬하게 피신시켰습니다.

두 정탐꾼은 그 모든 경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성경기록에는 없지만 성벽 위에 기생집이 있을 만큼(15 절) 성벽이 아주 튼튼하고 웅장했다는 보고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성벽은 전차 두 대가 교차해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성벽을 뚫고 공격하기는 현재의 이스라엘로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을 텐데도 거동이 수상한 자로 신고 당했습니다. 곧바로 체포조가 들이닥칠 정도로 경계 태세 또한 철저하다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생집은 외지인이 현지의 정세를 수집하기도 편하지만 대신에 현지인이 수상한 나그네를 물색하기도 쉬운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언뜻 보면 큰 수확이 없었을 것 같은 정탐이 사실은 너무나 중대한 정보를 캐왔습니다. 기생 하랍에게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간담이 녹아 있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10 절 a) 때문입니다. 바닷 물을 마르게 하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겐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라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처음에는 전부 거짓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홍해의 기적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출 18:1) 미디안 족속은 여러 나라를 장사하러 다니는 중근동 지역의 정보통이었습니다. 거기다 애굽에서 함께 탈출한 잡족들도 홍해의 현장에 동참했기에 그들의 증언도 각 족속들에게 순식간에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출애굽은 요즘으로 치면 군대조차 조직되지 않은 아프리카의 최소국이 미국을 상대로 열한 번 싸워 전승한 것입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알보고 몇 천 명만 파병하여 전투하다가 패배하자 차츰 장비와 숫자를 늘려서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전폭기들을 다 동원해도 패배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최신에 핵무기 레이저 무기들마저 전자장비가 전혀 작동이 안 되어서 사용도 못해보고 완패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출애굽 이후의 애굽은 역사의 중심무대에서 사라졌듯이 미국도 열한 번의 패배 후에 완전히 국력이 소진되어서 최강국의 지위에서 약소국으로 내려앉은 꼴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고대에는 전쟁은 각 민족 신들의 능력 대결로 간주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홉 번의 재앙은 전부 그들 우상 신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인명 피해는 열 번째 장자가 죽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인생살이의 예상치 못한 불행과 자연 재앙에서 스스로 위로 받으려고 큰 위력을 지닌 자연 현상이나 물건에 빚대어 고안해낸 것입니다. 인간 성정이 동일하기에 고대의 우상들은 이름만 달랐지 사실은 같은 신들을 섬긴 셈입니다.

애굽의 신들도 그 나라가 최강국이니까 고대의 가장 위력이 센 신들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들이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형상도 없는 이스라엘의 신에게 그것도 선지자 노인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선 자기들 신들은 대보나마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 신들로만 대적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당대 최고의 우상주술사 발람을 동원하려 했으나 세 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그 소식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갖는 공포심은 현대인들이 미국에 갖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쳇말로 미국을 완전히 떡이 되도록 열 한 번이나 갖고 놀았던 민족에게 주변의 아프리카 소국들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설 만큼 무모한 짓은 없습니다.

광야를 생생하게 건너온 이스라엘

문제는 홍해를 마른 사건은 이미 사십 년 전 일이라 그 직후에는 몰라도 지금쯤은 잊어버리거나 처음 들었을 때보다 충격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 들어간 이후로는 구체적인 소식이 끊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해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라합의 고백은 엄연한 진실이었습니다.

라합이 또 어떻게 실토했습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10 절 b)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불 뱀과 전갈들이 설치는 광야를 사십 년간이나 방황했음에도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생생한 모습으로 이방 족속들 눈앞에 딱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십 년 전의 홍해 사건이 오히려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흔히들 뉴스나 소문이란 전해지는 기간과 통로가 많아질수록 더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전멸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그 소식을 들은 위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많음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민 22:2,3)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은 일상적 전투에서 전멸 당했고, 모압 왕 발락은 신들의 대결에서 저주의 신탁 한마디도 병긋 못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여리고가 현실적 무기나 영적 무기 중에 택할 수단이라곤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하지만 막상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잔뜩 겁을 집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성 안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파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 그들의 평소 군대 체제와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극도로 긴장하여서 예민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라합이 심히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 짧은 문장 안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겠습니까? 라합으로선 적국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기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한 후에 성내의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리고로선 어떤 수를 써도 대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성중의 분위기가 대적할 꿈도 못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들이 한갓 기생의 말을 쉽사리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몰래 숨겨주고 여리고 군인을 따돌리는 것을 보고서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간주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술집에서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뜨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았습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요단 동편까지 다다른 히브리 족속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에 쏠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방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두 정탐꾼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들 성 앞에 도달한 첫날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수 6:1) 적극적으로 전투를 개시할 시도는커녕 엄두도 못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미동도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만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적국의 신인 여호와의 처분에 맡기려는 꼴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전혀 없었으니 자기들 나름의 정탐꾼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현실적 대책이라곤 두터운 성벽의 위력만 믿고 장기전으로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엄청난 물자를 비축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 났습니다. 바다를 가른

여호와인데 인간이 만든 성이 아무리 튼튼한들 그분 앞에 전혀 장애가 될 수 없음은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리고로선 외적에게 함락당한 적이 없어서 성안에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모리의 시혼과 옥 왕이 맞서서 싸우는 바람에 전멸 당했다고 하니까 대적만 안하면 우회해줄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살펴본 결과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까지 자기 백성을 이끌며 역사했던 일들을 가나안 족속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 대적할 군대도 신도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있었음도 알았습니다. 애굽과 아모리 두 왕이 졌다면 일개 성읍인 여리고가 도무지 맞설 수 없다는 계산도 못할 정도로 여리고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들로선 자기들이 염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주민들이 공포에 가득 차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것입니다.(24 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하고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간담을 주물러서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십 년 전의 가데스 바네야에선 이스라엘이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예 전쟁도 치르지 않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지금은 여리고 성 주민이 반대로 메뚜기 신드롬에 걸렸습니다. 전쟁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회해주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여리고 백성의 역 메뚜기 신드롬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더 크고도 신묘한 역사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정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기록이 없어도 행간의 의미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로 마음이 녹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십 년 전 홍해의 기적 후에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가데스 바네야를 비롯한 가나안 주민들이 느꼈을 공포심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설마 그렇게 셀까 하고 덤벼다가 무참하게 패배한 뒤라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그 때 이스라엘이 두렵긴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단 진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호와가 틀림없이 여리고 이상의 초자연적 기적으로 아무 피해 없이 가데스 바네야를 탈취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자식이 잡혀가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삼백 명의 용사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사방을 살피며 손으로 물을 떠로 혀로 핏을 먹는 큰 겁쟁이들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삿 7:6)

멀지도 어렵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강론한 후에 입이 닳도록 권면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 30:14) 백성들은 말씀이 멀리 있어서 어렵게만 여겨지지만 모세는 정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선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멀고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주변 족속들은 여호와가 홍해 물이 마르게 했다는 소문만 듣고도 벌써부터 간담이 녹아내려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반면에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의 최정예 군대의 시체들이 바다에 즐비하게 떠있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야낙 자손의 큰 덩치에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겠습니까? 당신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사시나무 떨듯이 이미 완전히 주물러 놓았는데 거꾸로 당신의 백성이 더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리석고 완악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와서 판이하게 달라지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급할 때만 기도해서 겨우 해결 받고는 입을 닫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너무나 치사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축복은 기억에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당장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쏟아 부어달라는 요구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백 년 전에 확정해 놓은 미래를 당신의 일정표와 방식 대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할 세력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를 빼고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징벌도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행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이전에 당신의 백성부터 두 번이나 진멸하려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당신께서 확보한 미래의 축복 안에서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자라게 하려는 애끓는 심정으로 그런 벌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을 이끌고 다시 복을 부어주려는 그분의 열성과 끈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와 동일한 열성과 끈기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분별해내어 걸맞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서 구세대들은 한 발자국만 건네는 그 몇 초간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무려 사십년이 지체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아무 의미 없게 허무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생명과 죽음으로 나뉜다는 모세의 권면이 결코 과장된 종교적 표어가 아닙니다.

그런 당부를 했을 때의 모세의 심정도 헤아려 보십시오. 떨기나무 불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이후에 자기에게 계시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이 됨도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풍요롭게 기쁨이 넘치니까 제발 순종하라고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자들은 자기 욕심과 판단에만 따라서 눈에 닥치는 여건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일회용의 전술만 세우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확보된 미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므로 신앙생활에 장기적으로 일관된 전략이 없습니다. 급할 때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믿음의 실현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절묘한 전술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기가 정한 큰 것을 무조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은 큰 승리에 그분께 쓰임 받으며 동참해 나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리고의 큰 승리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내리도록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신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여서 그 열매를 취득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와 환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뜨겁게 기도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여 그 보장된 영광의 열매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수 2:15-21)

여장부 라합의 순간적인 기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방어태세를 살펴보러 보낸 두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홍해에서 바닷물을 말리는 기적을 일으켰고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케 해 아모리의 두 왕까지 전멸시킨 일에 관해 가나안 족속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주민들은 벌써부터 간담이 완전히 녹아내려져 이스라엘과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정보만으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로선 첫 전투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엄청난 승리에 라합이 일등공신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여리고에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격려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여리고 전투에 기여한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신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막의 안주인으로 오래 동안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했고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은 여장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주민 한 명이 수상한 행색의 두 나그네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인 줄 눈치 채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6 절)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조가 들이닥쳐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어느 나라에서 보냈는지는 몰라도 외지인 두 사람이 왔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4 절) 그러나 성문이 닫기 전에 떠났으니 급히 따라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까지 해주었습니다.(5 절) 참으로 놀라운 지혜입니다.

어지간한 남자들도 갖지 못한 담대함은 물론 노련함이 돋보입니다. 군인들더러 자기 말을 온전히 믿게끔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순순히 시인하고선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정탐꾼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군인들로선 그녀를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서 빨리 따라가면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줌으로써 군인들이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추격에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리 빨리 따라 가봐야 허사입니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을 나누는 경계는 요단강인데 그곳 나루터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두 사람을 다른 길로 피신시킬 여유를 번 것입니다. 추격대가 나루터까지 가서도 발견하지 못하면 이미 강을 건너 이스라엘 지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추격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므로 그녀에게 책임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고 여리고를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조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정탐꾼들을 성 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줄로 매달아 내리고 탄 길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기생집 안에는 여전히 다른 손님들이 남아있어서 정문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완전히 수색을 포기하도록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사흘은 숨어 있다가 가라고 세심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16 절)

그 전에 정탐꾼들과 라합은 서로를 선대하여 목숨을 지켜주기로 약조를 맺습니다. 우선 라합은 정탐꾼들과 나눈 대화와 도망간 경로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보상으로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에 자신과 가족들은 죽이지 않고 구해준다는 맹서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12-13 절) 정탐꾼들로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데다 자기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못 들어줄 리 없습니다.

라합의 신앙고백

그녀는 엄연히 여리고 백성이며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정복하러 온 적국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리고는 완전히

진멸되었으므로 을사보호조약으로 조선의 국가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이완용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꼴입니다.

만약 그 거짓말이 먹히지 않고 여리고 군인들이 집안 구석을 샅샅이 뒤졌다면 또 혹시라도 정탐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동안 발각이라도 난다면 그녀도 바로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걸만한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만 조국을 멸망하게 만들 그 살 떨리는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탐꾼들이 잡히면 당장 사형에 처하게 될 처지가 불쌍해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자기 목숨까지 걸게 된 첫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앞에 간담이 완전히 녹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족속과 맞섰다가 틀림없이 아모리 왕 시혼과 옥처럼 전멸 당할 것이고 그럼 자기도 죽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도의 두려움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었고 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계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스라엘에 항복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군대가 아주 살벌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여리고 주민의 공포심이 대단했음을 거꾸로 반증하는 셈입니다.

주목할 사항은 그녀가 정탐꾼을 숨기자마자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8 절) 그렇다면 평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처음 건넨 말을 다시 살펴보시다. 먼저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9 절)고 시작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11 절)고 마쳤습니다. 이는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이며 땅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입니다. 여호와와 그 양쪽을 다 주관 통치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안에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다른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여호와에 권능에 비추면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 전체를 통치하지 않고 그 나라와 종족만 주관하는 지역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히브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라 가나안의 지역 신들을 총동원해서 맞선들 승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물론 아모리 두 왕들과 이방 최고 주술사 발람 등 모든 이방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녀의 세상만사를 판단하는 지혜는 물론 영적인 분별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녀 혼자만이 가나안에서 올바른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를 아주 능력이 큰 신이라고 두려워는 해도 정확하게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종교학이나 신학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한갓 아녀자로 기생입니다. 고대의 기생이란 사실은 창녀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정말로 한 많고 비참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자들의 하루 저녁 성적인 노리개 감이 되는 것 말고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지긋지긋한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는 아무 생각 없이 파김치가 된 육신을 침상에 던지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요컨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똑같은, 아니 차라리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을 끊으려니 죽은 후 하늘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 확실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겨우 연명하고 있던 차에 정말로 희한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애굽에서 사백 년간이나 노예로 섬기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시ết말로 열 번이나 완전히 목사발로 만들고 탈출한 후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먹고 마실 것 하나 없는 광야를 그 많은 백성이 사십 년간을 방황했어도 강건하게 생존해 나와서 아모리 두 왕까지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의 신은 지금껏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신인지 알고 싶고 그 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부러워졌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신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한 소망도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한 천하의 추악한 죄인이었고 그런 심판을 받아도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길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신다운 신인 여호와에게 뭔가 구원의 길이 있거나, 최소한 자기 인생에 대한 위로라도 얻을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실 날 같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그 히브리 민족의 정탐꾼이 아무 예고 없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곤 없이 비천한 기생으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그녀의 인생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한줄기 빛이 비취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 소망 없이 죽으나, 아니 살아도 죽은 것만큼 못할 바에야, 이번에 한 번 죽기 살기로 자기 인생을 뒤집어보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듯하면 바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녀의 그런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자신과 두 정탐꾼의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패 자체를 그녀가 갈랐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의 모험과 기지가 없었다면 두

정탐꾼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들켰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처형만 시킬 리 없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잔인한 고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알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많고, 애굽과 아말렉과 미디안과 아모리 족속을 패배시킨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유추해보면 최고로 궁금했을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나이든 그 선지자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모세는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킬 때까지 지휘하다가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죽어서 이름 모를 곳에 묻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에서 보듯이 고대의 총사령관은 자신의 죽음을 적군에게 비밀로 합니다. 아직 모세의 죽음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 노인이 살아있다면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발람의 사건을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발람이 당시에 가장 영험했던 주술사 발람에게 백지수표를 제시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각 민족 신들의 대결인 고대 전쟁의 승패는 결국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사탄의 종들임에도 자기에게 치성과 제물을 많이 바치는 쪽에게 사탄이 능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잡혀서 여리고 군대의 고문에 못 이겨서 모세가 벌써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리고 성 전투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응전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는 하겠지만 사상자가 만만치 않게 나왔을 것입니다.

결국 기생 라합의 담대한 결단이 이스라엘에게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계속 강조해왔듯이 여리고 성은 백성들의 행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구원 받는다.

요컨대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까지 바쳤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도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한 명이 죽어서 이백만 명이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이 땅의 죄인들을 다스린다는 원리가 이때에도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21 절의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벽 위에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여러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와 약조한 대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전투를 치를 때에 쉽게 구별해서 살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그 붉은 줄은 누구나 명확히 볼 수 있었고 또 라합의 집인 줄 모르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단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문 21 절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줄을 달았다고 말하니까 정탐꾼이 도망간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 절에선 두 정탐꾼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매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성 주위를 도는 행진을 하기 전에는 매달았고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최고로 짧게 잡아도 일주일 이상을 달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라합도 인정했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빨간 줄이 달렸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 사건과 연결해서 뭔가 있다고 쉽게 의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붉은 줄을 계속해서 달아놓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마침 지난주에 미국 TV 에서 영화를 한편 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중역인 여성이 밤중에 혼자서 출장을 가려고 시골길로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가는데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차가 미끄러져 길가 낮은 곳의 눈이 많이 쌓인 곳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차는 꼼짝달싹하지 않았고 여자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적한 시골이라 셀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거의 없는데다 길에선 그곳에 차가 빠졌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칫 차안에서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니다.

그녀는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빨간색 속옷을 꺼내서 트렁크에 달린 라디오 안테나에 걸었고 지나가던 경찰이 그 빨간 옷을 보고서 구해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측컨대 정탐꾼들과 라합도 그런 기지를 발휘했을 것 같습니다. 기생은 주로 채색 옷을 입었기에 길다란 빨간 옷이나 수건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마치 빨래 널 듯이 달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혹시라도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 받게 되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였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할 때에 지시한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18,19 절)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던 날 밤에 여호와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면서 구세대들에게 내린 지시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1-23)

이스라엘은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의 인방과 설주에 가로 세로로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안에 모여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아무도 밖에 나가선 안 되었습니다. 그 사자는 붉은 피를 보고 그 집에 심판을 보류하고 건너 띄었고 붉은 피가 발라져있지 않는 애굽 집의 장자만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만약 밖에 나갔다면 심판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라합더러 온 식구를 집안에 모이게 하고 붉은 줄로 구별해서 표시하되 만약 집 문을 벗어나 거리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건 모험으로 구원 받을 만하다고 쳐도 그 가족은 전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 받은 것입니다. 라합의 자기 목숨을 건 이런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녀와 정탐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내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에겐 출애굽 때의 죽음의 사자를 통한 구원이 너무나 오묘해서 뇌리에 온전히 박혔고 그래서 무심결에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리고 성벽 위에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 유월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구원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의 라합의 집에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라합 개인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며 정탐꾼을 도와서 피신시킨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와 공적을 보고 구원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라합이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시인했습니다. 어차피 저주 받아 비천하게 죽을 바에야 그 참 하나님에게 목숨까지 의탁해보겠다고 기꺼이 또 담대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녀로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껏 섬겨왔던 모든 이방신들은 바치는 치성에 따라서 현실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은혜로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제사 드릴 때만 종교적인 자기만족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있었을 뿐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섬겼어도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허무하고 갈급해지기만 했습니다. 라합 개인과는 어떤 인격적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조각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그와 달리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많이 일으키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오래 전에 맺은 언약을 이루려고 지금 여리고 눈앞에까지 인도해왔습니다. 여호와야말로 하늘과 땅 즉, 영계와 물질계 둘을 다 다스리는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로선 만약 여호와마저 자기를 외면한다면 자기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담담히 받아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학적으로 정리만 안 되었을 뿐 분명히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하는 말의 후반부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19 절 b) 만약 여리고 사람이 너희를 죽이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고 합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탐꾼들 또한 자기들의 목숨으로 너희 가족의 목숨과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자는 서로 간의 피의 맹세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당신의 자녀는 죽음으로 끝까지 보호 인도한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낸 것입니다. 라합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탐꾼들도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이 간섭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에 따라서 맹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걸라.

인간적 현실적으로 따지면 한 순간만 빠끗해도 라합과 두 정탐꾼은 당장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며 들어 사용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보게끔 인도해주십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재빨리 피신시키는 것을 그 집의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 빠른 한 사람만 신고하러 갔습니다. 집에서 줄로 달아 내릴 때도, 한밤중이었겠지만, 또 사흘간이나 숨어서 도피할 때도 아무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내걸린 붉은 줄에 관해서도 끝까지 눈치 채기는커녕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세밀한 간섭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그 붉은 피의 은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고 끝까지 보호해주십니다. 반대로 그 피를 보고도 자기 공로만 앞세우는 자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으며 주님을 배척했던 자기 허물로 죽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죽음 직전까지 갈만큼 절망적인 인생이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빛이라곤 새어 들어올 바늘구멍조차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파멸만이 앞에 보이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정말 죽지 못해 겨우 연명만 하고 있던 라합의 일상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두 정탐꾼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보낸 구원의 천사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검증 확인한 후에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죽음뿐이라는 진정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쪽으로 한 발자국만 옮기는 모험을 결행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죽음과 사탄과 죄악과 흑암의 세상에서 생명과 하나님과 의와 빛의 나라로 순간적으로 옮겨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싶은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심어주십니다. 기생 라합처럼 평소에 타락한 세상에선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는 대신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품고 정말로 의로운 인생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녀가 매일 밤 출구가 없는 절망 가운데 눈물로 지새며 처절하게 영적 씨름을 했기에 목숨을 건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성벽 위에 있던 그녀의 집은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함께 땅에 흔적도 없이 파묻혔습니다. 어떤 의미와 기쁨도 없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함께 묻히고 붉은 줄로 구원 받아 여호와의 충성된 여종 라합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은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줍니다.

신자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은 일은 세상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 줄을 내거는 것입니다. 모든 이로 자신이 예수 믿는 신자인 줄 알게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만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붉은 줄을 거는 순간 자동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즉, 피를 흘려야만 하는 반발 멸시 음해 핍박이 따라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했기에 담대하라고 명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내거는 예수님의 붉은 줄로 인해서 세상과 사탄에 미혹된 영혼들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수 3:7-13)

큰 개울(?) 같은 요단강

기생 라합의 목숨을 건 기지와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환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도리어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그녀의 결정적인 정보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진군만 하면 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걸음을 떼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의 범람이 그들을 가로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는데 하나님은 홍해처럼 강물을 물러가게 해서 맨땅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자세히 살피면 홍해 때와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여리고 전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강폭도 아주 좁고 수심도 얕아서 그냥 걸어서 건너가도 될 것 같아서 본문에 기록된 기적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상류의 갈릴리 호수에 수문을 설치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대폭 줄였기 때문인데 여호수아 때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헬몬 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 바다로 흐르는데 총 길이가 약 500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최상류의 강바닥이 해발 900 미터이고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사해는 해저 400 미터이니까 그 편차가 무려 1300 미터나 될 정도로 가파른 땅을 흐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폭이 넓고 그 별칭이 “빨리 흘러내리는 물”이듯이 유속도 아주 빨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장소는 여리고 동편 길갈이고 시기는 정월 십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수 4:19) 길갈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의 하부 요단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니까 당연히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살은 더 급하고 강해지며 수심도 깊어집니다. 유대력 정월

십일은 양력으로 삼사월 경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으로써 해발 2814 미터인 헬몬에 쌓인 눈이 녹아내려서 수량이 더욱 급격히 늘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15 절 a)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단의 기적이 홍해와 크게 달랐던 점은 추격하는 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뒤에는 애굽의 최정에 전차군단이 맹렬히 추격해오고 앞은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가나 뒤로 물러서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닷물을 갈라주었지만 여전히 양쪽으로 높은 벽을 쌓고 있어서 언제 다시 덮칠지 몰라 두려웠어도 다른 수가 없으니 이판사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먼 상류에 멈춰 섰고 백성들은 그냥 마른 땅의 계곡을 건너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 방해가 없는데도...

전쟁은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유리한데 강을 건너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공격하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군대는 미동도 않고 정탐꾼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마음 놓고 아무 때나 건너도 되었습니다. 도강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다면 구태여 수량이 가장 많고 급하게 흐르는 시기에 건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꼭 그 시기에 건너라고 명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무 의심 없이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해보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큰 능력을 과시하려는 뜻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것과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물질계 안에 갇혀 사는 인간의 지혜는 항상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그 판단의 범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사안이라도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만의 전략을 갖고 백성들을 이끄시는 반면에 인간은 부분적 일시적 제한적 전술에만 집중합니다. 그나마 하나님더러 당장 해결해 내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뽀족한 전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거뜰하게 건넌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수 5:1)

수량이 많고 유속도 빠르고 자칫 홍수로 범람하는 시기에 이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요단을 건너리라고는 여리고를 비롯한 온 가나안이 예상은커녕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단 서쪽이 아니라 그 서쪽의 끝인 해변의 왕들까지 정신을 잃었더라고 말했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실토했는데 이젠 죄송하지만 바지에 오줌을 쌀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강을 건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강을 건널 때에 기습할 계획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대신에 성안에서 양식과 물을 저장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견고한 성벽만 믿고 장기전으로 버티려는 너무나 초보적인 전술만 세운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에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 쪽으로 연합군이 상륙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북한군은 방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틈새를 타서 맥아더 장군은 인천을 확보해 결정적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허를 찌르는 기습이 누구나 아는 전쟁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해서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띄어난 것이 아니라고 여겨선 안 됩니다.

우선 맥아더는 물이 들어와 수심이 깊어지는 시점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한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칙마저 스스로 어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사이의 간극을 매울 수 있는 존재나 힘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발적이고도 기꺼운 인간을 향한 긍휼 말고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기적이란 하나님의 인간의 급박한 사정을 봐주어서 대폭 양보한 비상조치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왜소함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은 당연히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비추어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도 온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어리석은 신자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넘어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당시로는 여리고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성안에서 오래 버티자는 의견을 내었고 모두가 수긍했습니다. 최선의 방안인지라 단 한 명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그 시기에 침공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방안이 제대로 작동도 못해보고 일순간에 철저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아무리 합리적이고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거역한 상황에선 공중에 흩날려 사라질 한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성중에 유일하게 여호와가 하늘과 땅 둘 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목숨까지 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성주, 신하들, 제사장, 선지자 모두 다 합쳐도 성령이 간섭한 비천한 기생이자 창녀의 영적인 분별력의 발등상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의 견고성을 알아보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어려운 고난 시험 연단에 밀어 넣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오직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다스립니다. 첫째 당신의 백성의 현실적 풍요가 아니라 오직 영적 유익이 증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공동체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사탄처럼 신자를 자기 기분에 따라 독선적으로 미혹 조종 농간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불가능하고 엄청난 불행 고난이 따를 것이 뻔히 보이고 심지어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일을 강권적으로 맡기기도 합니다. 종합적 장기적으로 반드시 선으로 바꿀 종착지가 예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이 당시의 여건에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의 홍해나 지금 요단강의 도하는 상식과 이성으로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으나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만의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은 의심과 원망으로 곤혹스럽더라도 일단은 자신의 전부를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서도 담대하고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실력이 믿음입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종합적 장기적으로 보시는 그분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좋다는 너무나 자명한 한 가지 진리만이라도 온전히 붙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제사장이 선봉을 섰다.

홍해 때는 모세가 언덕에 서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뻗자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고 강물에 한 발자국을 들여 놓으니 물이 멈춘 것도 달랐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궤를 옮기려다 잘못 취급하여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언약궤가 떠내려가면 더 큰일입니다. 본문도 여호와가 앞장섰고 그분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을 보리라고 선언했습니다.(10,11 절) 광야 방향 중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겨우 성소의 향로 불인데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붙였습니다. 그러자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즉사하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어려서 목격했을 수 있고 최소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레 10 장)

크게 넘실대는 요단의 급류에 제사장들이 언약궤까지 매고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여호와가 함께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궤를 멘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몸이 흔들리지 않게 물이 곧바로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17 절 a)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한걸음이라도 물에 발을 담그는 행동으로 순종해주길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차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의 행진도 목숨을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는데 제사장더러 맨 앞장을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미리 그 여행연습을 시킨 셈입니다.

죽음에서 목숨을 건짐 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이라도 온전히 체험하면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자는 힘들 때마다 지금껏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주셨으며, 고난에서 어떻게 구원해주셨는지 회상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생각과 길과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음에도 훨씬 더 선하고 완벽했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선 가나안 땅에 앞으로 세워질 당신의 나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왕국을 세운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수 5:12) 그 전까지는 일용할 양식도 내지 못하는 황량한 광야만 방향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자 그런 비상한 상황이 일상적인 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상으로 들어서는 출입문

요단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진영과 여리고성을 나누는 전술적 경계선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넘치고 사탄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지역으로 나누는 경계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에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가나안도 일시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렸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완악한 가나안 족속들에게조차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선 죄악이 관영했음에도 안락하게 지내도록 사백 년이나 인내해주었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백성을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시켰다가 때가 차매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취득하여 탈출하도록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맨 땅을 건널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리게 해서 그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항복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여호와가 최강의 신임을 인정하고 화친이라도 청했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고 그마저 그들에게겐 큰 은혜일 따름입니다.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만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직 안 되었을 뿐 누차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백성의 거주지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한 발자국만 담그면 온전히 그들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큰 위기로 다가온 요단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서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바꾸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세대에 부어주려고 마련해 놓은 축복의 첫 열매였습니다.

요단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비정상적 위기상황에선 하나님으로서도,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다른 방안은 없이 비정상적인 기적으로

보호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직접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그것을 선포하고 수행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한두 명의 믿음의 영웅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상황에선 그런 기적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서 거할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주셨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도 세웠고 제사장 제도도 확립했고 무엇보다 성막과 언약궤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깨달아서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사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즉사하는 벌을 주심으로 제사장들에 대한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요단 이전까지 광야는 목숨을 위협할만한 위험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십니다.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는 시작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평화 시대로 넘어가는 다른 말로 전쟁을 마치기 위한 이스라엘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후로는 제사장들이 술선수범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다른 민족들의 침공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에 당신의 영광을 영원토록 견고하고도 거룩하게 드러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

본문에서 정작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구세대들을 출애굽 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과 동일한 과정을 신세대들에게도 밟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에 대해 신세대들에게 자세히 다시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아말렉과 전투 했듯이 신세대들도 아모리 두 왕과 상대로 전투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와 가데스 바네야에서 거역했을 때에 그 주모자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이방주술사 발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여자와 행음한 자들을 엄격히 심판했습니다.

지금 요단에서 홍해와 같은 기적도 맛보게 합니다. 구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 받았을 때에 피의 서약식을 거행했듯이 요단을 건넌 후에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찬가지로 할례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서원하게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신세대들은 자기들 부모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가 막상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세대와 같이 몸으로 체험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 하에 태어나는 인간의 성정은 똑같고 그 인간사회가 만들어내는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거기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실제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요단강 도하는 신세대에게 하나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만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의 일상이 되어있었기에 기적은커녕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술사 발람의 저주를 막아준 것도 하나님 혼자서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으켰고 다 끝난 후에야 알게 된 것이라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눈앞에서 그 엄청난 양의 급류가 일순간에 멈추고 물러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마른 땅을 쉽게 건넌고 다 건널 동안에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음을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17 절 b) 아무리 엄청난 위력을 지닌 자연 재앙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다 자기들을 대적할 여리고 군대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세대와 똑같은 과정으로 신세대를 훈련시키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이 당신께 행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런 열심과 끈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세대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게 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으로 끝이 날지라도 또 다시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완악했던 구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도 신세대들을 기어이 요단 앞에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당신으로선 얼마나 번거롭고 지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세를 광야 바위산 어딘가에 죽게 내버려두고서라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평생토록 자기 개인을 위한 삶은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신세대들로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의 무덤을 밟고라도 가나안에 들어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모세 같은 지도자로 세우려고 요단강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7 절) 여호수아가 그분의 영광스런 일에 쓰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평화의 시대

하나님은 가나안에 새로 시작될 평화의 시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제사장들로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홀로 앞장서는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근본 자세는 지녀야 합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끄는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살고 죽음이 말씀을 가르치고 숭선수범하는 것에 달렸고, 백성들의 살고 죽음은 전해 받은 말씀에 순종함에 달리는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일 뿐입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어떤 주저함과 미심쩍음과 원망함 하나 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의 희생제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이므로 제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 회복 받는 절차이므로 더더욱 말씀의 순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기적 자체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전부 다 기록해야 합니다.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기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하는 후대의 독자들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믿은 자들은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율법대로 살면 생명이 살아남을 생생하게 보이고 체험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신세대도 여호와가 하늘과 땅 둘 다를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후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홍해나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들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먼저 만나야 하고 그 후로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의 형통과 안락은 뒷전이었고 평생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목사들도 성도들 앞에 죄악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평생토록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설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목사가 삶에서 맺은 복음의 거룩한 열매들을 보고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서 과감히 기꺼이 열정적으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세대들은 요단강의 넘실대는 급류에 언약궤까지 메고서 목숨을 걸고 한발을 딛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에서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목숨을 걸고 앞섰기에 안심하고 뒤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군대는 이스라엘이 봄철 추수기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 움짱달짝 못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이미 다 무너뜨려 놓은 것을 제사장들이 그냥 앞장서서 발로 밟은 것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복음만 제대로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면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목사 한 명이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온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래 강단에 말씀이 넘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되고 도리어 개독교라는 비난만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원색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설령 순전하게 전했어도 목사들이 설교한 대로 원색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신자들에게만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신자들이 그대로 따를 리는 절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무너뜨렸다면, 오늘날에는 저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지만 목사들 때문에 세상의 여리고성들이 더 튼튼해지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기도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 목사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려서 당신의 영광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역사상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신세대의 할례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수 5:2-9)

너무나 느긋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남은 일은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율법대로 준행하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어야 하는데 그 첫 상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시가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너무나 한가하게도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합니다. 할례의 상처가 완전히 낫기를 처소에서 기다리라고 명했는데(8 절) 최소 일주일의 지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이유를 보면 꼭 그렇게 서둘러서 행했어야만 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길에서 난” 신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4 절) 광야에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옮겨야 했고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고 또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지도 몰랐습니다. 할례 후에 상처가 아무는 휴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할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5 절) 구세대들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으나 한곳에서 거주하며 정상생활을 했기에 할례를 행할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세대들도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 사십 년이 넘도록 여호와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구세대들은 만나 뿐 아니라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생생히 보았는데도 그분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완악함만 탓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매일 일어나면 그냥 당연한 일상사로 여기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가운데 매일 매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신자라고 절대 피해가지 않기에 주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으면 언제 누가 희생자가 될지 모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에서 열까지 그분이 동행해주시는 너무나 큰 권능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된 것 만한 큰 기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상의 기적에 너무나 무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그분께 의심 불평 원망하기에,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러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할레 없는 백성이 되었더라.

할레를 행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할레 없는 자가 되었기”(7 절)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할레 있는 자여야 하지 이방인처럼 할레가 없는 상태로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성 포경수술이 일반화되었지만 고대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할레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 규정으로 받기 훨씬 전에(레 12:2,3) 아브라함 때에 이미 모든 유대 남성은 난지 8 일 만에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했습니다.(창 17:9-14)

최초로 할레를 행하게 한 뜻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창 17:13)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살을 잘라낸 상처의 흔적이 평생을 가듯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후손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히브리 자손이 아니라도 그들 중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이나 종으로 산 이방 노예도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길 소원하면 그 표시로 할레를 받게 한 후에 모든 면에서 히브리인과 동일한 대우와

축복을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와 유대 민족만을 편애하고 이방인을 차별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종족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한 대로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하는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할례 받은 이방 사람과 종도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출 12:43-51) 그날에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 나온 중대한 잡 족들도 이미 여호와와의 언약에 참여했던 자들이라 자기들 장자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올 리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사백 년간 노예로 살고 있어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정체성은 확실히 유지했고 그 증표로 할례는 지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예도 여호와와의 언약 백성도 아니며 가나안 땅을 소지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차지할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라 너무나 당연히 할례는 행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전쟁 중에 죽으면 결과적으로 할례 없는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마저 막아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요컨대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누릴 수혜자라는 표시였습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므로 이번 전쟁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여 승리케 해주겠다고 하나님 쪽에서 새삼 확실하게 다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삼상 17:26)고 선포했습니다. 할례는 언약백성과 이방족속을 나누는 기준을 넘어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시였습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유대인들만이 갖는 자부심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들 구원자로 인정할지 시험해볼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면 된다고 답해주었습니다.(출 3:15) 말하자면 애굽의 동족들이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할례를 지속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으로써 애굽의 그 모진 노예살이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구원해내어 가나안의 접경까지 이끌면서 세상 어느 민족도 체험은커녕 상상도 못하는 온갖 이적을 다 베풀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야로 진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백년 된 소원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자가 잡혀 죽거나 노예로 비참한 상황에 빠질까 두려워서 한 순간에 그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껏 온갖 고생을 해가며 살아온 동기 목적 의미 가치였던 그 가나안을 말입니다. 처자식의 안전이, 정확히 말해선 자신들의 순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거기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너무 열악한데다 아침저녁으로 성막 위만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지긋지긋한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려니 장대한 아낙 자손 때문에 도무지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시 노예로 봉사해주면 죽이지는 않고 정상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때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실감나게 비유하자면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남편을 버리고 돈 많은 노인과 눈이 맞아 가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광야 방황하는 벌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차고 넘치는 공훈이었습니다.

구세대가 너무 치사하고 비겁해 보입니까? 솔직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의 큰일에 쓰임 받고도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의 깊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나와 가족의 안위에 위협이 조금만 가해지면 그런 열정은커녕 소망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께 의심 불평 원망하기 바쁘고 때로는 그분을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쳐라.

그런데 신세대가 행한 할례의식은 히브리인으로써 정체성을 확립시키려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할례를 제정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후손을 하늘의 못별처럼 창성케 해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창 15:6)

아브라함은 곧바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창 15:8)라고 반문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제물들을 둘로 찢개어 나누어 펼쳐 놓으라고 명했습니다.

한 밤중이 되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찢개어진 짐승 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창 15:17) 고대의 언약은 두 약속의 당사자가 짐승 제물 사이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어기면 상대가 자기를 죽여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꿈쩍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고대의 언약식 관습에 능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쪽에서 당신께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할례는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한참 후 아브라함이 99 세 때에 약속의 외아들이 내년에 네 몸에서 태어난다고 구체적으로 예고하면서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할례는

아브라함으로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였을 뿐입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아들이나 가나안을 주겠다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에게 할례에 해당하는 세레나 침례 의식과 의미가 같았습니다. 그 세례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신앙고백일 뿐이듯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겠다는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삭이 나서 청년이 되고 난 후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의 생명보다 귀한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더러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대로 지키겠다는 피의 맹세를 하라는 뜻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세대들이 애굽에서 할례를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써 애굽인과 다르다는 정체성만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율법을 수여 받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겠다고 맹세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출 24:1-11) 구세대도 비로소 언약을 어기면 목숨으로 갚겠다고 서약한 셈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본문의 신세대들의 할례에도 그들의 목숨을 걸라는 의미를 함께 부여했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나안 정복의 소망을 재확인하는 절차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구세대들이 시내 산에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맹세였습니다. 할례를 하면 피를 흘리게 된다는 외형적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물도록 처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적군이 알고 기습하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히위 족장 세겜이 강간하고는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창 34:14)고 이방족속과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 야곱을 닮아 비겁하게도 히위 족속들에게 할례를 하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곧바로 기습을 해서 전멸을 시키고 그들의 재산과 생축을 탈취해버립니다.

본문은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받자 신세대들도 당장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칫 기습을 당하면 꼼짝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도 틀림없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순히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피의 제사로 맹세한 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요단강의 급류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곧바로 끊어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는 동안 여리고 군대라곤 눈을 닦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전에 기생 라합으로부터 여리고가 지금 메뚜기 신드롬에 걸렸다는 확실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진을 쳐도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실제로 그는 이삭을 죽이려 칼을 들었습니다. 일생에 걸친 온갖 문제와 고난들을 통해 여호와와 영적 씨름을 해오면서 그분 외에는 참 생명이 없음을 철두철미 절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오묘한 지혜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정도까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켰고 모든 여건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자랐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죽음의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신앙연단을 시키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예표로 삼았습니다. 또 자기 전부를 바치는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뜻이었습니다.

구세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출애굽 시켜서 당신께서 사백년 전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치의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 등으로 당신의 권능을 여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시내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는 그 동안의 은혜가 넘쳐서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염려하거나 주저할 만한 장애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세대들도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 피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신세대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구세대와 동일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끈기로 지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요단의 급류를 무사히 건너고 본문의 현장에 이르도록 지나온 모든 경과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참여할 이유와 의미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칫 기습을 당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여리고 전투에서도 목숨 걸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시킨 것입니다.

죄까지 씻어주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디나 사건에서 선조들이 범한 죄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거꾸로 기습을 당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습을 이미 다 막아놓으시고 대신에 장막에서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상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다고 이미 저질러진 야곱의 아들들의 죄까지 씻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각자의 죄로만 심판 내지 형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함은 너희들은 결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앙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비슷한 죄에 빠지는 잘못까지 미리 막아주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신세대의 할례로 애굽의 수치를 씻었다고 말씀하셨는데(9 절) 바로 그런 뜻입니다. 후손의 순종으로 선조의 죄가 씻어질 리는 없습니다. 구세대들의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도 할례 없는 백성과는 달리 여호와만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할례 있는 백성이 할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수치스런 행위를 하는 바람에 여호와 당신마저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당신께서 앞장서서 몰아내어 줄 테니 즉, 우상을 숭배할 여건 자체를 없애 줄 테니 너희들만은 앞으로 거할 가나안 땅에서 절대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을 주모한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내게 화를 미쳐 가나안 족속 앞에 냄새가 나게 했다고 탄식했습니다.(창 34:30) 할례 있는 백성이 할례 없는 백성 앞에 수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신들 앞에 수치 당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건을 거꾸로 재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과거 수치까지 씻어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양쪽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에 먹칠 한 죄를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열방들 앞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언약을 당신께서 어김없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계신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하여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난 후에야 목숨을 걸만한 큰일을 맡겼습니다. 그전에는 믿음의 분량에 맞을 만큼만 당신의 일을 하나씩 조금씩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거기다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케 하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마저 예방해주셨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바다에 멀리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바로 가까이 있어서 쉽게 지킬 수 있다고 마지막까지 강조한 그대로입니다.(신 30:11-14)

예수님의 피의 맹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상처 등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사역과 이적들을 통해 실현시키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다 계시해주었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충분하고도 넘치게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 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당신을 대적하던 우리의 타락한 심령을 거둬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여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모든 더럽고 비참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서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거룩과 빛과 의로 나타나도록 범사를 주관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 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표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권능에는 단 한 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명을 바쳐서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만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훈련 교육시키고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과정이 아닌 것이라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의로운 오른 손에 힘이 빠진 순간도 단 일초도 없습니다. 죄에 찌든 본성이 아직도 생생한 우리로선 그분의 거룩한 인도가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솔직히 귀찮고 싫을 때가 있지만 당신께선 그 신실함이 줄어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우리 계획대로, 그것도 인간적 방안이나 욕심에 젖어 행했어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죄와 세상으로 향할 때는 미리 막아주십니다. 심지어 알고도 습관적으로 지은 죄마저 회개로 이끄는 사건이나 계기를 그분께서 마련해주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강권적인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되돌려주십니다. 범사를 정말로 그분 중심으로 분별 판단하면 매순간이 그분의 은총과 권능이 넘치는 기적의 연속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행할 일은 정말로 여리고로 진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구세대의 가데사 바네야의 거역을,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도 결국은 우상숭배로 타락하는 후손들이 범한 잘못과 비슷한 실패를 매번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과 똑같이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처자식이 염려된다는 것 하나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불신자 시절과 크게 나아진 것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고난이 생겨야만 기도 뜨겁게 한다는 것 하나 빼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려고 노력도 않고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조차 스스로 읽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기가 소원하는 눈에 보이는 목표물의 주위를 밟아 돌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이 준다는 너무나 값싸고 가난한 신앙만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가 폭삭 무너뜨려졌듯이 그 건물을 아주 싼 값에 싸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아주 좋은 신앙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싸게 판 사람은 크게 손해 본다는 사실에는 전혀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탐욕적인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의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것이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며, 아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아주 크고 굳건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다 준비시키고 주위 여건도 마련하고 앞으로 일어날 방해 위험마저 먼저 가서 제거해 놓으시고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딱 적합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들만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평생 자기 삶을 희생하며 당신의 일만 하라고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처럼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는 더더욱 밀어 넣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례의 가장 기본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자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에 들어와서 그분의 축복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럴 소망과 열정만 있으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마련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의 할례 기사는 물론 여리고 성 전투가 말하는 바입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하나님 이름에 수치를 끼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마저 못한다고,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떼를 쓰며 자기가 갖고 싶은 땅만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당장 다시 오시려고 신발 끈을 묶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의 수치까지 다 제거해주셨는데 두렵고 주저할 만한 방해 요소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유월절 제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수 5:10-12)

언약 성취의 첫 열매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성들 전부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장막에서 쉬어야만 하므로 기습을 당하면 전멸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상황에선 도저히 해선 안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께서 여리고 주민들로 거꾸로 메뚜기 신드롬에 걸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한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킬 수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여유가 넘쳤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그 땅의 첫 소출을 먹었다고 무려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도 두 번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풍부하고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이 났기에 하나님의 기적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가나안에서 모든 백성에게 거부가 될 만큼 소출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상적인 농경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똑같습니다. 굳이 은혜로 따지자면 먹고 마실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무려 사십년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 훨씬 더 큼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보다 떠나온 애굽이 모든 현실 여건에서 훨씬 좋았으니까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 받을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과 등진 인생은 아무리 소출이 풍부해도 가시덤불만 생기는 고난의 길이자 그 영적 실상은 죽음입니다.

반면에 신세대는 전부 광야 길에서 났거나 가세스 바네야 거역 때에 미성년인지라 애굽 즉, 세상이 주는 쾌락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힘들었던 기억 밖에 없었기에 구태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은 생기지 않는 대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헛되게 죽는 벌을 내렸어도 그들의 자식들을 향해선 이처럼 하나님만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정확히 말해선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완전하신 섭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막상 그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작용된 것입니다.

가나안 입경 직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이 그 일정표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앞으로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도 당연히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끝나리라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신세대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와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유월절인가?

그런데 첫 열매는 창조주를 믿는 유대인들로선 아벨의 제사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다 가나안 땅의 첫 소출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하려면 유월절보다 보리와 밀의 수확이 끝나는 맥추절이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이 더 좋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막 보리나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꼭 유월절 제사로 받기를 원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것이 정월 십일이었는데(수 4:19) 같은 달 십사일(10 절)에 즉, 4 일 만에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럼 할례 의식을 그 동안에 마쳤는지 할례를 행하는 중에 유월절을

행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둘을 동시에 행했습니다. 이젠 유월절 제사와 할례를 함께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두 가지 종교예식을 하게해서 당신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해보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유월절이 제정된 과정과 의미에 대해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출애굽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여호와가 죽음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아홉 번이나 하나님의 히브리인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거역했고 그에 따른 큰 재앙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그 완악한 고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하려는 할례 받은 이방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이방에 가로세로로 바른 후에 그 고기로 식사하면서 집안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문에 발린 피가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심판이 건너 띄었는데 만약 히브리인 장남이라도 그 밤에 집안에 머물지 않고 밖에 나갔다면 피의 표식이 없어서 죽음의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이나 다른 이방 잡 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즉,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당신께서 마련한 제물인 어린양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다고 애굽을 물리칠 수도 없고 주변 나라들이 도와줄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홉 번이나 애굽의 우상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큰 손해를 입히는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는 여호와를 대적하며 끝까지 완악하게 버텼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고집이 완고했던 때문이 아니었으며 그 진자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신,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 받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신들의 경쟁의 결과라고 믿었기에 바로가 세상에서 최고로 강력한 신인 셈입니다. 그런 바로가 자기들이 부려 먹던 노예 민족의 신에게, 그것도 장엄한 신상도 경건한 제사

절차도 없고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신에게 굴복해선 백성은 물론 자신에게 도무지 위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팔십 넘은 히브리 노인이자 애굽 궁정에서 종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자기를 건책하는 말 한마디에 복종하기에는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아홉 번의 재앙으로 애굽에게 경제적 타격만 가했으나 바로의 그 헛된 고집을 꺾으려면 애굽 사람들을 죽여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 전부를 심판한다는 뜻으로 대표 원리에 따라 장자만 죽이자 비로소 바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혼자만 심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도 역시 애굽의 최고위 신이 됩니다. 애굽의 종교체계와 애굽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까지 완전히 히브리 식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에는 그들의 거역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기 장남이 죽자 비로소 항복한 것은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백성들과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점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당신 되심을 증명하며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바꾸려고 아홉 번이나 신앙교육을 시켰고 마지막 열 번 째에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애굽 군대가 홍해까지 추격해서 바닷물에 익사하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 헛된 죽음에도 하나님은 애굽에게, 정확히 말해 성경을 읽는 모든 후대 신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계시했습니다. 당신께서 큰 인내심으로 모든 자비를 다 베풀어주어도 불신자들은 스스로의 완악하고 악의적인 죄로 심판받는다라는 진리를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갔던 애굽인들 스스로 열한 번이나 증명했지 않습니까?

미리 행한 감사의 잔치

모세가 동족의 구원자로 여호와로써 부름 받았을 때에 출애굽의 증거를 달라고 하자 너희가 시내산에서 당신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을 해야만 당도하는 곳이므로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출애굽은 당연히 이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바로에게 동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 신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려 광야로 보내주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일주년 되는 날에 출애굽의 은혜를 회상하며 실제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민 9:5)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큰소리쳤던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생일대의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신세대에게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함께 지내라고 명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한가롭고 짓궂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그분의 뜻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고 할례로 자신들의 피부를 자를 때에 흘린 피를 봄으로써 출애굽 때에 구원의 문에 발랐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해처럼 요단의 급류가 끓기는 체험을 했고 할례를 행했고 지금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도 대적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유월절이 있었기에 시내 광야 유월절 제사와 가나안 입성이 가능했는데 다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당신께서 당연히 승리케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를 그분의 백성들이 미리 감사 축하하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첫발을 내딛자 첫 예배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그 땅 소산으로 먹는 첫 식사도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세대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선명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의 매일의 식사와 삶이 유월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세워질 당신의 나라도 유월절 구원의 원리에 따라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살펴본 대로 출애굽에 실현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회상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확신하고 미리부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평강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례와 유월절을 함께 행해도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협할 요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의미

신자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식사가 유월절 식사여야 하고 매일의 삶이 유월절 제사여야 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실 선물이 그분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한국 속담에 비유하자면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세상에선 실현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부터 좋아하지 말라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리는 절대로 없으므로 백퍼센트 긍정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지할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영생이자 그곳에서의 부활영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가는 여행연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졌듯이 이 땅에서 이뤄지길 소원하고 기도하며 천국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는 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유월절 대속죽음에서 가장 기본적인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쳐선 안 됩니다. 신자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능력 공로 없이 구원 받았다는 뜻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되 택한 자에게 미리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구원 안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떤 방식과 의미이든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이나 방법만 가르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결말은 본인이 죽은 후 그 신의 독단적인 재량에 맡겨집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확신 없이 평생을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씨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구원을 얻는 길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당신이 바로 길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인데 그럼 믿어지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택한 자에게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먼저 구원을 다 이루어놓았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후로는 부모가 자식을 내치는 법이 전혀 없듯이 구원의 취소 또한 결코 없습니다.

간혹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실상 구원을 쟁취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다른 종교와 같아집니다. 바울은 할례 같은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갈 1:7,8)

구세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지만 동물의 죽음으로 인간을 대속하기엔 부족합니다. 장차 실현될 십자가 구원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물로

바쳐진 골고다의 유월절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는 그런 식의 구원은 애굽의 바로처럼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이 극에 달한 인간으로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사형수 죄인이 구주가 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삼년 간 동고동락하며 배운 제자들마저 십자가 대속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은 더더욱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부터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른 후에 탈출해야 할 자들로 문을 거꾸로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꼼짝 말고 느긋하게 식사만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밖의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깜깜히 몰랐습니다. 그 동안 아홉 번이나 큰 기적을 일으켰기에 이번에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그냥 지시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구원의 길도 인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자만 골라서 죽였다는 초자연적인 방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직접 이 땅에 왔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내는 도덕 윤리 철학 사상 종교로 주는 관념적인 구원으론 절대로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 첫 유월절처럼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하나님 본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의심 불만

원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 없이는 세상 최고의 부자 권력자 지성인 도덕군자 종교인에게도 영원한 참 소망이라곤 눈곱만큼도 생길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쟁취할 수 없는 구원이니까 성령이 간섭하여 거듭나야만 합니다. 도무지 말로 설명해도 모르니까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생전에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어 그날에 삼천 명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후로는 성령이 신자에게 내주하여서 이미 확정된 선물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평생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끔 보호 인도해줍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신자의 매일은 유월절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이미 확정된 부활생명에 대해 미리부터 김치국 마시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은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담담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두고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고 권면했습니다. 자기처럼 현실적으로 궁핍 고난 박해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천국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종교를 아편처럼 활용하라는 것도 아니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영광 가운데로 어서 빨리 가고 싶었고 또 실제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

출애굽의 유월절에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애굽에도 어린 양 피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피의 표식이 없어서 장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장자가 대신 죽었기에 나머지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은 전부 죽어 마땅하지만 장자들을 대속 제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살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도 비취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베푸시는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준 것입니다. 여호와가 애굽에서도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사 19:24,25)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지는 날에는 모든 열방이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꿇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 열방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현해 놓은 구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5-7)

교회 안팎의 모든 형제들을 관용으로 대하며 주의 구원을 알게 해주라고 합니다. 지금 신세대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관용으로 대하며 주의 구원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신세대에게 기어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제사상 나라의 소명에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혼자 풍요하게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소명을 실현하는 중에 겪는 어떤 고난이라도 도리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매일을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 얼마든지 매일을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다스리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의 유월절의 통치 원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제대로 분별하여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민질서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미국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데도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신자들마저 본문이 말하는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삶에 그 제사의 기쁨을 실현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첫 내용조차 모릅니다. 출애굽 날밤 애굽에 도 십자가 복음이 계시 실현된 것을 안다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 함께 나눠서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도 포함해 누구라 할 것 없이 돈만을 주인으로 삼아 살며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경제개발에만 모든 노력을 쏟는 바람에 자연이 훼손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이 땅은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온갖 병균들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유전자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이번보다 더 치명적이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수단도 다 고갈되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들마저 하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인간이 고안한 모든 신들이 여호와에게 무참히 패배했고 유월절로 인해 최강의 신 바로도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인 유월절은 보지 않습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손쉽게 거저 받을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홍해와 요단 같이 현실적으로 큰 권능만 찾고 있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유월절의 최종목적인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당연히 따라오는 절차이자 과정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로 제발 십자가 앞으로 나와 당신께 진정으로 엮드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출석하는데 부담 줄 수 있다고 유일한 참 생명인 골고다 십자가조차 증거 하지 않거나 퇴색 변개 타협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출애굽이 없었듯이 철저한 죄책감으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는 십자가 구원과 부활생명으로 결코 갈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는 잘 기획된 종교적인 쇼로 변질되었고 헌금은 그 입장권일 뿐입니다.

교회들이 무력해도,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영원한 진리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에 인류 문명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에 되어버리는 실상 앞에 사람들은 큰 공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래전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911 사태처럼 그 가운데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의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 중대한 잡 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듯이 말입니다.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감사와 섬김과 나눔의 생활에 나태했는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만은 모두가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의 모습과 평소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상 드러지는 예배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과 단절됨으로써 평소에 이웃을 주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잘못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교회와 교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기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치 유월절에 집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가족끼리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교회와 교인들더러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만 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혼란스런 사태와 그에 따른 변화들마저 오직 유월절 권능과 은혜로만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의 유월절 제사는 여리고 성 전투 승리에 대해 신세대들이 미리 김치국부터 마신 환희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도 가나안의 매일을 유월절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자도 매일의 삶이 유월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리고 성벽처럼 견고해 보여도 그 안에도 십자가 구원의 뜻이 넘치도록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한 것처럼 정말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자라면 매일을 유월절처럼 살 수 있고 또 코로나로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 5:13-15)

천사 앞에 었드린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여리고 군대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동시에 안전하게 거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를 미리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백년 전 선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일만 남았습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오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막아섰습니다. 그 동안 적군이라곤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고 자기편이 가로 막을 리도 없습니다. 대신에 혼자 당당하게 나타난 모습에서 뭔가 신령한 기운이 넘쳐서 제사장이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할례와 유월절 예식까지 마친 믿음의 종 여호수아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격려하러 보냈다고 눈치를 찻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편인지 적의 편인지 물어봤습니다.(13 절)

그럼 여호수아가 선한 천사만이 아니라 사탄과 그 졸개들도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욥기의 서론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묵인 하에 사탄도 가시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 술사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 모세가 일으킨 처음 두 번의 재앙을 흉내 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주술사 발람에게 세 번이나 백지 수표를 제시해가며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고 매달린 것도 실제로 저주의 효력이 심심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주자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마 10:24) 오늘날도 복음은 물론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미개지에선 주술사들이 저주를 실행시키거나 반대로 병도 낫게 해서 사람들로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 농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한 채 버려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기꺼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실 뿐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먼저 믿고 순전히 따르는 신자들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절대로 조종 농간 당하지 않는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천사로부터 “여호와와 그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곧바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14 절) 죄에 찌든 인간은 당신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며 그분이 보낸 사자라도 그 앞에 고개를 들고 서있을 수 없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천사에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이 전해지므로 일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적으로 온몸에서 힘이 빠져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전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인간은 그분께 자신의 어떤 것도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 들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자 입술의 말은 물론 마음의 묵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필연적으로 “주여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너무나 싱거운 결말.

그런데 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거나 그의 곁에서 전투에 대한 지략을 자문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14 절)라고 물은 것도 이번 전쟁을 대비해 할레와 유월절 외에 또 행할 일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만 지시했는데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대로 따랐습니다. 문제는 성경 기록이 거기까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더 이상 다른 행동은 물론 대화도 없었습니다. 천사는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치고는 너무나 싱거운 출현과 과정과 결말입니다. 그것도 여리고 첫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시점에 말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의 충성도를 마지막으로 시험해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천사에게 누구 편이냐고 물었을 정도로 의심이나 겁이 많아서 다시 격려해주려던 것입니까?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가데스바네야 사건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헌신된 종은 없습니다. 새삼 그의 믿음을 독려 내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서 그가 서있는 땅이 거룩하다는 점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알다시피 단순히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당신만이 창조주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물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께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따로 떼어내어 당신께 속하게 만든 것도 당연히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순전하고 신성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추악한 원래의 상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겉으로 의롭고 아름답게 보여도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구세대가 사십 년간 방황하며 죽음을 맞았던 광야도 매일 만나와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호와가 동행해 주었으니 너무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목축과 양봉이 주업이라는 뜻이므로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제 곧 당신의 백성들의 소유로 바꿔주고 함께 하여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니까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발은 죄로 타락한 세상과 직접 접촉하기에 세상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붙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속하려면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행해야 첫째 순서가 신발을 벗고 그곳에 앞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임직식

그러나 여호와가 통치하지 않는 장소는 세상에 없으며,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지 않는 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천사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고 심지어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절 한 번 받으려고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발만 벗게 하고 홀연히 사라졌어도 결코 싱겁지 않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리고 전투를 행하기 전에 구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세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여호와가 임재 했을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출 3:5)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동일한 영적권위를 세워주려 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 백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여호수아도 천사와 일대일로 대면한 것입니다.

설령 백성들이 함께 있었다 쳐도 여호수아에게만 들리고 보이는 개인적인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즉”(13 절)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대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삼상 3 장) 또 엘리야의 시종의 눈에만 여호와와 불 병거가 보이고 아람 군대는 전혀 몰랐던(왕하 6:17) 경우와 같다고 봐야 합니다.

이 대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워주기 보다는 그 개인에게만 알게 해주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동역자로 따로 구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세우고 헌신시키려는 거룩한 취임식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명하여 불러낸 당신의 종이 그 맡은 일을 실현하기 시작하려 할 때에 당신의 임재 하에 일종의 취임식을 단둘이서만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맡겨줄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어서 당신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명자로 충성하겠다고 진심으로 서약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했어도 자기 일을 행하는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였다면 그분을 일대일로 대면하고 나면 반드시 그분의 일에만 헌신하게 되는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와는 당신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정처 없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와 장자권을 발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져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면서 생명을 건지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인생이 철부지 막내아들에서 가문을 보존하고 창성케 할 자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첫 떼자마자 성막에 바쳐진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에게만 들리는 음성으로 첫 선지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앞으로 그의 일생을

통해 실현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불에 탄 화제가 죄로 더럽혀진 자기 입술에 닿는 환상을 통해 수난 받는 그리스도를 증거 할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마저 요단강에 몸을 담그자 문둥병이 나옴으로써 이방 땅에 여호와를 증거할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만남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면의 방식과 의미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자는 하나님 쪽에서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그 본인도 순순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한 번은 거칩니다. 그 부르심의 진행과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 그 종이 처해있는 당시 상황에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에게 부여할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한 후에 장차 열리게 될 열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 시키는 동일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잘못으로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어 받았지만 받은 소명이 같기에 당신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는 동일한 방식의 임직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둘에게 임재해서 대면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타지 않는 불꽃이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태어나자 다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일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는 동족을 위해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할 지에 대해 하나님은 팔십년이나 침묵으로 일관했고 현실은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미디안 광야 어디에서나 항상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여호와가 나타났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바로의 궁정에서 사십 년간 출애굽 전문가로, 미디안 양치기로 사십 년간 광야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모세를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바로 곁에 있는 떨기나무로 확인시킨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셨던 바로 그 땅을 맨발로 밟아 그분의 은혜를 피부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오직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궁리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 그를 만나준 까닭은 이 전쟁의 승리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전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께서 앞장서서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호수아 네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를 네가 쟁취했다고 선불리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나를 따르는 열성과 믿음이 확고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할레 없는 백성이 여호와와 군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함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에 여호와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수 1:3)고 약속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과거 시제를 사용해 이미 확정된 미래임을 나타냈습니다. 신발을 벗고 엎드리라는 것은 그 약속의 재확인일 뿐 아니라 미리 그 땅의 거룩함을 온 몸과 심령 가득히 느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레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영원히 살아있듯이 그 거룩한 땅을 발로 밟았기에 가나안은 여호수아의 발에 영원히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났는가?

오늘날에도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열정과 믿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명한 자라면 당신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일대일로 만나 주시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동안의 인생 경험, 교육과 이력, 주변 여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 등을 활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간혹 스스로 먼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어도 주님의 기쁨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분명한 부르심의 절차가 따릅니다.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그가 나기도 전에 성전에 바쳐졌으나 주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듯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면이 전문 사역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는 것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당신께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지금껏 지내온 삶이 전부 철두철미 실패였음을 깨닫게 해주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게 할지는 점차 조금씩 깨닫게 해주지만 일단 처음 믿을 때에 그분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은 세워줍니다. 그런 헌신 자체가 사실상 온전한 소명이자 그분의 종으로 이미 온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 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대속 제물로 바쳐진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단만했을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길을 물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성령이 죄인의 심령에 역사해 거듭나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한 죄인의 영혼이 서로 일대일로 만나는 체험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보려고 왔던 니고데모였지만 아직은 성령이 간섭하기 전이라 주님의 구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삼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니고데모 만큼 영생에 대해 간절했고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적 믿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을 배반했고 부활

후에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비로소 구원이 확정되고 주님의 제자이자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원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함은 이미 받았으나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일은 성령님과과의 대면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날에도 구원과 관계없이 교회 출석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영생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을 이전과 180 도 다르게 정반대로 바꾸는 일생에 한번 뿐인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본인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심령이 찢려 쪼개어져서 그 추악한 실상이 완전히 벗겨벗겨집니다. 그런 나조차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자녀이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도무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객관적인 기독교교리를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값싸고 시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과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의 심령 전체를 뒤집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후로 내주하셔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맞바꾼 천하보다 귀한 그분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의 뜻이 세상 어느 것보다 최우선이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분의 종으로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공통적 특징 하나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개인적으로 용서해주는 절차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그가 말을 사명을 깨우쳐주는 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과 의미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 복음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바울에게 하늘의 찬란한 빛으로 먼저 찾아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극렬히 핍박했기 때문인데 그가 말을 소명에 대한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아일 뿐이며 로마의 사형수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종교라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더러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을 사랑하는 메시아임을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경험, 지식, 신앙 정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당신의 일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준비 훈련시켜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민족 인종 외모에 차별하지 않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지역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신자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갑자기 인격과 성품이 고결해지거나 믿음의 수준이 심오해지거나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자로 바뀌어서 주님의 소명자로 걸어감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여건에서 자신의 경험 지성 특기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님의 구체적인 일을 찾아서 하나씩 실현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장애가 생기고 심지어 핍박을 받아도 그 새로운 삶이 불편하기는 해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본성이 연약하다 못해 죄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수시로 지체함과 쓰러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생이 완전히 유턴(u-turn) 되었기에 다시는 되돌아가는(turning back) 법이 결코 없습니다. 평생을 한 곳만 바라보고 한 길로만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중도에 지치고 때로 실수는 했어도 한 번도 각자가 맡은 사도의 직분을 놓은 적이 없었듯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는 구원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래 동안 성실하게 출석한 셈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아말렉 전투의 일선지휘관으로, 가데스 바네야의 정탐꾼 등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에선 하나님이 그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면서 여호와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정식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후로 여호수아는 평생을 바쳐 그 소명에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돌아갈 퇴로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그들에게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광야로 되돌아갈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당신의 일에 충성하게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가 직접 만나주는 자들도 소수이긴 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여호와와 남은 자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연약한 동족은 물론 우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서있는 자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먼저 찾아와서 네가 서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진짜 한 가지 목적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혹시 나에겐 극적인 주님과 대면이 없었기에 여전히 도통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처럼 평생을 바치는 전임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도 확정되지 않았고 성령도 보편적으로 역사하기 전이라 자연히 그 부르시는 절차가 좀 더 극적이어야

했고, 또 당장에 시킬 일이 있어서 급진적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의 내용과 본질은 그들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시간과 절차가 각양각색이라 간혹 지체되고 점진적일지라도 반드시 일생일대의 전환이 한 번은 일어납니다.

성령이 먼저 간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계획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끈기가 신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쪽이 더 강하다는 것이며 또 그래서 신자가 아무리 힘든 여건 사건 사람과 마주쳐도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분의 일이 달성되고 신자에게도 큰 유익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기껏 절 한 번 받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취임식을 하나님과 단 둘이서 거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신자들더러 단순히 교회에 자기들끼리 모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여 자기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따로 거룩하게 불러내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며, 그 자체만 해도 평생을 바칠 소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여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며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참 신자는 간혹 잠시 그래도 금방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받은 소명자로 되돌아옵니다. 사탄에 미혹되어 있던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윤택해서 다시는 터닝백 하고 싶지 않아야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는 그 견고했던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자기 소명을 실현하는 데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듯이 코로나가 닥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주 불편하긴 해도 결코 그런 것들이 어떤 훼방거리도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서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실감하기에 신발을 벗고 그분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기필코 다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太

목숨을 건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수 6:1-7)

전투를 포기한 여리고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기사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줄서서 성 주변을 돌면서 함께 기도만 했는데도 철옹성 같던 성벽이 그대로 무너지고 손쉽게 진멸하는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나 어떤 해결하기 힘든 대상의 주변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 마찬가지로 기적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번 위기도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종식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응답해주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무너졌다는 것은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자들로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까지 그 승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여덟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이 바로 본문 1 절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으로부터 엄청난 정보를 얻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이 그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탈출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거뜬히 생존케 했고 최근에는 아모리 왕들 시혼과 옥을 심판한 것까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직후에 홍해 물을 둘로 나누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장대한 군대와 튼튼한 성벽들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너무 작게 여겨져 전투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라합에 따르면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십년 전부터 여호와에 대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신이 이번에도 급류가

흘러넘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고 하니 다시 더 크게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수 5:1)

본문 1 절은 여리고 성 주민들이 거꾸로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서 전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가 전투를 포기했기에 이스라엘이 성 주변을 돌며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 지금껏 여리고 성 전투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 해석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땅 밟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과, 둘째 결코 손쉽게 기적적으로 거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곱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를 또 다른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고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려고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을 배치했고 언약궤 뒤를 모든 군사가 따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처음 육일 간 한 바퀴씩 돌 때나, 마지막 칠일 째에 일곱 바퀴 돌 때나 줄곧 나팔을 불러야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백성이나 군사들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언급은 눈을 닦고 보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지시하는 대로 전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2 절 b)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이미 확정해놓은 승리를 두고 기도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고 전투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쟁은 여호와와의 것으로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 당신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성 주변을 돌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의 매 절기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에 드러지는 예배에 나오라는 소집 공고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베풀어주셨던 그분의 은혜와 권능에 감사하는 예배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 성 주변의 땅을 밟으면서 돌 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6:10)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모세오경을 눈으로만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리듯이 작게 소리 내어 읽으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 다시 말씀에 생각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운율이 있어서 시를 낭송하면 노래처럼 아름답게 들립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암송해야 할 유대인들로 당신의 역사와 은혜를 암기하기 쉽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도 그렇게 묵상하듯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야단쳤습니다.(마 6:5)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고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행진하는 동안에 일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제사장의 선창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때때로 아주 짓궂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전쟁터에서 너무나 한가하게 찬송에만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너무나 여유자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위급한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겐 절대로 위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즉, 당신께서 그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놓았는데 구태여 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아슬아슬한 행진

둘째로 이스라엘이 손쉽게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런 전투 방식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세계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가장 정상적이고도 효과적인 전술은 제일 약해 보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바위로 쌓은 성벽은 폭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무너뜨리기 아주 힘듭니다. 가장 방어태세가 허술한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백병전을 벌입니다. 또 나무로 된 성문을 부수려고 뾰족하게 자른 큰 나무둥치나 쇠뿔치로 계속 힘껏 두들깁니다. 이번처럼 튼튼한 성안에서 장기적으로 농성하려고 들면 공격하는 쪽도 충분한 보급을 받으면서 성내의 식량과 물이 떨어지도록 기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행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따라서 성 주변을 빙빙 돌아야 하니까 여리고 성에서 볼 때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걷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을 바라보며 방어태세를 갖추고 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성 쪽을 보고 돌려면 가재결음이어야 하는데 그 많은 군대로선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 앞뒤로 호위했다고 말합니다.(6,9 절) 일반 군사는 무장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아주 빈약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얼떨결에 탈출했으니 제대로 무기를 갖추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통해 군대를 조직하긴 했지만 광야를 도는 동안에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절부터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까닭도 철기로 된 무기를 블레셋이 독점했고 유대인들은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삼상 13:19-23, 17:7)

말하자면 자기들 약점을 최대한 감추며 여리고의 최고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 할 이스라엘이 거꾸로 자신들의 가장 취약한 상태를 적군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화살이나 창으로 사격연습하기에 딱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칠일이나 돌라고 했고 마지막 날은 일곱 번까지 돌라고 명합니다.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지 않은 신세대라도 이는 전투에선 절대로 행해선 안 되는 일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창이나 화살이 닿지 않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돌라고 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라면 순종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그냥 운동하며 체력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고 앞뒤에서 양각나팔을 불며 찬양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시를 내릴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창과 화살의 사정권 안에서 돌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자마자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여호수아는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순간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 목숨을 걸고 칠일 동안이나 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그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아무나 창과 화살을 맞고 픽픽 쓰러져 죽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요단 급류를 건너는 동안, 또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적군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있다는 라합의 실토가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나타나 이 전투는 당신께서 먼저 가서 행할 테니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주면서 당신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케 했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려는 기색이라곤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조금 망설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호와와 군대 장관을 대면하여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마지못해 용기를 내어 진군했는데 성에서 창이나 화살이 전혀 날라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군사들도 여전히 조금 불안하긴 해도 담대히 그 뒤를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장한 자들로 앞서게 한 것도 여리고가 공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해도 맨 앞장을 서야하는 제사장들이 두려워할 수 있기에 그들을 격려할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로선 공격 받기 너무 좋은 모습으로 행군하기에 하나님에게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성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행진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여호와와 약속까지 이미 받았습니다.(5 절) 그럼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위급하고 소중한 것이 자기 목숨이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찬양으로 치르는 전투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 행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땅 밟기였습니다. 그것도 칠일 동안에 도합 열 세 번이나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리고 성을 한번만 돌아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더러 구태여 이렇게 번잡하고 가슴 졸이는 절차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첫째 이유는 살펴본 대로 신세대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부모들과 동일한 체험을 시켜서 동일한 의미의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성을 공격하려는 태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완전히 무력하게 두 손과 두 발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교육받은 것을 실전을 통해 최종시험을 치르는 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져 현실의 소망이 없어질 때가 하나님의 기적적 권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직 그분만 소망하고 의지하여서 그 절망을 당당히 싸워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칠일 동안 돌되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야 했고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나팔을 불었던 그 회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숫자는 칠년 째의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는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의 영어가 ‘jubilee’인데 히브리어로 양각 나팔 ‘요벨’(יובל)이 그 어원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만큼 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번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처음 하루 이들은 불안해서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들이 겁을 집어먹고 미리 도망갔고 당시에 위세를 크게 자랑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적의 사정권 내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는데도 성은 쥐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습니다.

점점 여호와와 크신 권능과 완전하신 섭리가 가슴 가득히 채워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신나고 힘이 넘치는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는 찬양 가사로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저 굳게 닫힌 성문과 너무나 조용한 성벽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아무 염려 말아라. 할례 없는 백성의 성벽은 이제 곧 무너지리라.”

상식과 이성으로 따져선 너무나 비정상적인 전투였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에 너무나 은혜로운 교제와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구세대는 홍해를 완전히 건넌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전쟁 중에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로 전투를 대신하게 하시는 신은 온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당신만의 오묘하고 완전한 섭리와 주권이 역사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십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심지어 아무리 이해가 안 될 만큼 힘들어도 당신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유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번거롭고도 너무나 아슬아슬한 땅 밟기를 명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기괴한 전투방식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성문을 퐁퐁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않는 여리고 주민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을 이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명하시는 구체적인 이유, 과정, 결과는 몰라도 이번에도 당신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기본적인 신뢰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전투의 방식은 여리고 주민들에게 이상하다 못해 아주 기괴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극도로 긴장해야 하는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평온한 가운데 찬양만 부릅니다. 공격할 태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성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칠일 동안 열 세 번이나 말입니다. 가뜰이나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 여호와에게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그 공포심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히브리신이 언제 큰 능력을 발휘할까 긴장해서 초조하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바깥 말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항복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걸어놓은 붉은 줄을 보고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항복을 의미하는 흰 깃발을 내걸라는 것입니다. 칠이라는 수자가 중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만의 공화를 인내의 한계까지 베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운 이유도 지도자로 술선수범시키려는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파워게임(power game)이었습니다. 히브리신이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고, 발람의 세 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그 탐욕스런 이방에서 최고로 영험한 주술사를 심판하셨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히브리 신과 자기들 신과는 전혀 게임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지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리고 주민이 겁을 먹은 대상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였습니다. 그 신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사장과 언약궤를 창과 화살로 공격해보려니 철통같이 무장하여 사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로 인해 간담이 녹아있는 판에 그런 시도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여리고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전쟁을 어떻게 시작할지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고 곧바로 양각 나팔을 불며 찬양부터 시작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예에서 보듯이 이방족속들은 전쟁을 앞두고는 자기 신에게 풍성한 제물을 바치며 승리의 신탁을 받으려는 제사부터 경건하게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도는 동안에 여리고 주민들도 틀림없이 성안에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경건하고 거창하게 드려도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이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치성으로 자기 몸을 찢어 피까지 흘렸으나 묵묵부답이었듯이 아무 응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저주의 주술도 승리의 신탁도 전혀 먹히지 않고 도리어 불안과 공포만 커져갔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실존조차 하지 않기에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배후에 작동하는 사탄도 지금 여호와 앞에 완전히 메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신탁의 절차 없이 바로 찬양을 시작할 뿐 아니라 신상조치 없다는 점이 더욱 이상했을 것입니다. 단지 금으로 덮은 상자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고 있습니다. 장엄한 인간이나 동물 모습의 신상이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위엄을 조장하려고 아주 크게 만들기에 신전에 모셔놓습니다. 저렇게 어깨에 매고 다닐 크기가 아닌데다 신성모독이라 인간이 감히 댈 수도 없습니다.

신들끼리 능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신상도 없는데다 제사장들의 출정식을 치르는 모습부터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이 성 주위만 빙빙 돌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그런 상황에선 간담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찬양하며 언약궤를 매고 행지하는 것은 히브리신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들 안에서 동행하시며 이런 전쟁에선 더욱 앞장서신다는 뜻입니다. 이방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치성과 제물만 배불리 받아먹는 신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히브리신에게 감히 맞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다른 신들보다 능력이 더 센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단순히 당신의 능력이 두려워 항복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온 족속을 거룩하게 통치하는 유일한 신임을 제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리고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을 헌신짝처럼 차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적 지혜를 다 동원해 짜낸 대책이 기껏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만 믿고 버티다 보면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돌아가 주기만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스스로 우회했다는 소문도 들은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현실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만약 우회해 줄 양이면 그렇게 열세 바뀌나 행진할 리가 없음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죄 하의 인간들이 이성적인 지혜도 너무 모자라고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적인 큰 고난을 겪어봐야 겨우 정신을 차릴까 말까입니다.

주술적인 땅 밟기는 당장 그만두라.

이 행진에서 완전 숫자 칠이 두 번 겹치듯이 하나님이 여리고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은 만약 마지막 한계가 차기 전에 여리고가 항복했다면 진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나안과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진술을 보고 너무나 냉혹 잔인한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잘못했는데도 모든 애굽 집의 장자를 심판한 것이 냉혹해보여도 그 전에 아홉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그전에 당신의 백성들로 사백 년간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시킨 후입니다. 여리고에도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주셨고 참을 때까지 참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더러 한가하게 할레나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며 지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칠 일간 성을 도는 것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여호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신에게 항복하는 대신 끝까지 버텨보자는 완악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의 잘못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이는 자기 죄로 심판 받으며 또 하나님도 반드시 심판해야 할 자만 심판하는 너무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가르침에서 수정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응답 받고 싶은 제목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해놓은 승리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찬양예배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승리는 사백년 전에 이미 작정되었고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이 차지하고 싶은 지역 내지 대상을 정해놓고서 둘레를 돌며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달렸고 응답하는 시기와 방식도 그분이 정하십니다. 더 중요하게는 신자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제목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여리고 성 같이 궁극적 승리가 보장된 소명을 다 심어주었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해주십니다. 패배로 끝날 것이면 그런 권세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신앙생활의 현장에선 큰 어려움이 따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b)는 예언과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신자의 눈에는 큰 고난과 위험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흥계를 깨트렸기에 궁극적 승리가 신자들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은 그 승리를 확신하고 범사에 감사 찬양하기만 요구하십니다. 최소한 아무 염려 초조해 하지 않고 그분이 주실 승리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리고 주민의 회개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불신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자부터 먼저 주도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거는 순종으로 그들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고 선봉에 섰는데 여호와가 가장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리고가 공격하면 제사장 즉, 여호와가 먼저 죽는 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리고 현장에도 충만하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지도자들부터 주님을 따라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신자는 물론 불신자들의 미혹된 영혼을 예수님의 영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두고 땅 밟기 기도만 하면 큰 응답을 받는다는 죄송하지만 주술적인 가르침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시장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야단쳤지 않습니까?

무슬림 지역에 가서 눈에 띄게 수십 수백 명의 신자들이 모스크 사원을 줄지어서 돌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람에 현지인들과 충돌을 빚고 추방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이야 그 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지만 막상 현지인들은 제 2의 십자가 전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기를 죽여 가며 그들을 섬기면서 십자가 대속죽음의 순정한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만 그들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승리에 이르는 길을 완벽하고 세밀한 섭리로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목숨까지 걸어야 할 방식의 전투를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앞서서 행하셨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홍해나 요단이나 철옹성 여리고나 이번 코로나 사태나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친밀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쥬블리 참 안식의 찬양을 목청껏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개질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 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수 6:15-21)

여리고를 맘껏 조롱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를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보기에선 사격 연습하기 아주 적합하게 횡대로 열을 지어서 무방비 상태로 찬양하며 성 주변을 걸어서 돌게 했습니다. 제 삼자가 볼 때는 마치 여리고 성의 주민에게 “내 잡아봐라!”는 식으로 놀리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로선 약이 오르고 분노에 차서 뭔가 반응을 해야 마땅한데 일주일 내내 쥐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 앞에 그들의 심장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철옹성 같은 성벽을 믿고 의외로 편안하게 지냈을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기괴한 전투 방식 때문에 두려웠겠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을 것입니다. 대엿새가 지나자 평온에 익숙해지고 점점 신경이 무뎌져 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장기간 농성하면 이스라엘이 제 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라고 안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주민으로선 이스라엘이 며칠 동안 몇 바퀴를 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7 일 째는 한 바퀴가 아니라 계속 돌자 다시 바짝 긴장하며 예의 주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곱 바퀴째에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고 그러자 전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 튼튼하던 성벽이 순식간에 폭삭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에서 물밀 듯이 쳐들어와 완전히 진멸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진멸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서(21 절)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족속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애굽에서 아홉 번이나 큰 재앙을 내리며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바로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장자들이 죽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리고도 그 사십년 전의 홍해의 기적을 통해 당신의 엄청난 권능에 대해 익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사백 년간이나 노예로 고생시키면서도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선 계속 참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어느 신에게도 없는 그런 큰 자비를 지금 7 일째 일곱 바퀴까지 여리고에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 빼고는 온 사방이 고요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성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 정말 입에 지퍼를 달아놓은 듯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제사장을 따라 걷기만 합니다.

오래전 영화 '미션'(Mission)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존 원시부족들에게 파송된 예수회 선교사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다 살해당합니다. 주인공 선교사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임지로 떠났는데 활과 창으로 무장한 원주민을 만나자 작은 피리를 꺼내어 불었습니다. 영화에선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해 아카데미 음악상까지 받은 절묘한 선율이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수도사가 연주할 수 있는 곡조는 찬양뿐입니다. 당장 죽일 듯이 달려들던 원주민들은 그 신기한 음악에 취해서 처음으로 그 선교사를 살려주었고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우상 신에게 바치는 음악과는 곡조가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들 영혼을 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겸손하고 정결해졌을 것입니다. 화려했고 거창한 신상도 없고 감각적인 춤도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곡조일 뿐 아니라 음악을 듣고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생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만 일으켜서 음행으로 이끄는 우상 신전의 세속적인 음악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족속 여리고도 그만큼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찬양이 일주일째 성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안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스라엘이 공격할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리고는 그 잘난 성벽 하나만 믿고서 하나님이 먼저 내밀어주신 긍휼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였습니다. 그렇다고 진멸하는 본보기를 보여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경고하여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단순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과업의 첫 열매인 셈입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쳐져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타락한 더럽고 추한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어선 안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성벽을 직접 일시에 전부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진멸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알려면 모세오경 전체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뜻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더러 절대로 더럽고 추한 죄악과 공존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여 우상숭배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진멸 대신에 이스라엘더러 먼저 화평하기를 요청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적하면 전쟁을 치르라는 원칙을 명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신 20:10-12) 여리고 이후로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자진해서 항복하는 성과는 전투하지 않았을 것이며 여리고처럼 끝까지 대적하는 성들만 정복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리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조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천하보다 더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원죄 하의 모든 인간이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 눌려 있는 상황에 대해 통렬히 분노하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최근의 고고학적 탐사가 알아낸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곡물을 많이 비축해 놓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침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때와 겹쳐 장기 농성 계획이 무리 없이 채택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무엇보다 성벽이 일시에 안쪽으로 폭삭 무너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진으로는 그렇게 무너질 수 없다고 하며 당시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홍수로 물이 침투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무너지면 먼저 무너진 곳의 피해가 가장 심해 나중에 그 원인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진도 없는데 성 전체가 단번에 동일한 모습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tv 뉴스에서 보듯이 오래 된 빌딩에 무게 중심이 되는 요소마다 폭약을 부착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없던 고대에 그런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으면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단번에 무너졌으니까 성 위의 군인들은 아무 대비도 못하고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성안의 주민들도 너무나 놀라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시에 성안으로 침투해서 진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미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참으로 오묘하고 정미하지 않습니까?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얼마든지 고라당의 반역 사건 때처럼 땅을 열어서 모든 백성을 함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당신의 백성들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고 후대에 더 큰 권능으로 기억될 텐데 오로지 성벽만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리고 주민이 그 튼튼한 성벽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 큰 것에 의존한들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미국의 일부 어리석은 부자들이 한적한 리조트로 피난 갔으나 오히려 자기들처럼 도망친 부자들이 몰려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핵전쟁 대피소를 구입하는 자들도 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개한 원시종교의 거대하고 기묘한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에게 안전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리고는 바알보다는 사실상 성벽이 우상이었습니다. 여호와와는 진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는 존재나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 잘못을 당대는 물론 후대 사람이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벌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아홉 재앙은 그들의 중요한 우상 신들을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당신만이 천하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임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엄숙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밋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성전에서 다윗이 밤새 기도했어도 앗아간 것은 그 죄를 심각하게 깨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심판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때에, 그것도 많은 인간적 시행착오를 겪게 한 후에 정말로 자기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뤄짐을 온전히 믿게 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얼굴에 직접 손을 대고 낮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추해서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는 문둥병자도 직접 살을 맞닿 정도로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가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면서 봉사였던 자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우물에 가서 씻게 해서 낮게 해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새로운 눈을 창조해준 것입니다.

당신의 극렬한 대적자 바울도 사흘간 눈을 멀게 했다 다시 보게 해주었는데 율법의 멍에에 묶인 영적 봉사를 십자가 은혜의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매사를 당신의 영원하고 완벽한 뜻과 계획에 따라 거룩하게 통치하십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당신만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으며 또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선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 승리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주변의 땅을 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잘된다는 가르침입니까? 그럼 땅을 밟으며 돌지 않으면 즉, 일상적인 기도는 응답 받기가 힘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살펴보면서 강조했듯이 이스라엘의 행진은 기도가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자 목숨을 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으로만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에서 언제 창이나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서 하나님께 지켜 달라는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칠일째 일곱 번까지 돌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했으니 돌긴 도는데 왜 꼭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하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미숙한 영성으로는 도무지 분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세대더러 침묵하며 행진만 하라는 명령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은 물론 생명까지 당신께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여리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자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로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집에 격리되자 그동안 돈만 주인으로 열심히 섬기던 불신자들마저 자기 인생을 절대자와 연결해 진지하게 묵상할 계기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 음행으로 이끈 미디안 족속과 발람을 심판하라, 급류가 넘치는 요단을 건너라,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치르라는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모든 지시는 선뜻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힘든 일들뿐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척박한 광야에 부모를 묻어야만 했던 쓰라린 추억도 있습니다. 비록 아침저녁으로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것과 별도로 당시로선 그분의 명령과 역사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며칠 간 곰곰이 따져봤더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선하게 결말 지어졌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하나님만의 은혜와 권능이 있었음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모든 개별 결과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구원과 연결되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사백년 전에 선조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의 어떤 제약과 훼방 없이 그 길로만 앞서서 꾸준히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방 대적들과 자연 기후 지리 등 그 어떤 것들도 그분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불순종과 주저함만이 그분의 걸어가시는 속도를 지체케 만들었다는 점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영적 깨달음의 내용과 깊이는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부인하려야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진리에는 도달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께 불순종해선 당장 자신들이 손해볼 뿐 아니라 그분의 엄위한 징벌이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같은 맥락에서 자기들 부모가 광야에서 너무나 헛되게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자기들은 앞으로 진군하여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로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배수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초조하면서도 지루하고 언제든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열 세 바퀴를 군말 없이 행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십시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합의했을 것입니다. 열세 바퀴 채에 이르자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여리고가 기도로 무너졌다는 교만

금주까지 여리고 성이 함락된 배경, 근거, 요소, 목적들을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로만 열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과 족장들의 시대를 거쳐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작용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 가장 적합한 인물에게 일어났다는 것과 그 각각의 사건에 하나님의 고유한 영적 의미 진리 훈계 등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땅 밟기 기도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를 그렇게 간단하고도 시시하게 이해하고 치위선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은 인간 신자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신자들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권능과 은혜를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여리고 같은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도 일으켜주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행한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순전하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이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양보하여 여리고 성을 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믿지 못한 일부 백성들이 성벽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누가 시킨 것입니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부터 하나님이 심어준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힘에 부대끼는 과제를 주어서 자식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 극복할 수 있게 양육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식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비록 자녀들 본인이 수고했지만 올곧게 자란 근본 배경과 근거는 부모의 사려 깊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훈련이 끝나면 자식이 전혀 기대도 않았는데 부모는 여리고 성 승리처럼 최신 스마트폰 같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신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 통일 되어서 그분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뿜 하고 응답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초자연적 기적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리석은 우리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신자의 기도를 통해 신자와 크게 다른 그 당신의 길을 역사하시길 기뻐합니다.

여리고성의 특이한 전투와 승리는 역사상 딱 한번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딱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백 년 전부터 계획해 놓은 승리였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다른 상황에 처하면 그에 합당한 다른 방식의 승리를 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의 후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것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전투에 임했으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노예근성에 절은 그 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간단히 물리친 것 같은 엄청난고도 손쉬운 승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신자 인생을 뜨개질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스라엘처럼 연약하고 영적 분별력도 어리석어 각 개별 사건을 겪을 때마다 아주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한 사건이 완전히 끝나도 그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신자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일생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마련해 놓은 계획에 따라 일생을 거룩하게 인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과 시기에 따라서 신자의 현실 삶에 완벽하게 실현시킵니다. 신자로 당신의 궁극적인 영광으로 참여케 하고 신자 본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신자의 일생을 뜨개질 하듯이 주관하십니다.形形色색의 실을 갖고 짜기 시작하면 그 실만 봐선 또 그때까지 짠 형태로만 봐선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각 개별 실에도 온갖 색깔이 섞여 있고 그런 실들이 어지럽게 가로 세로로 엮어져 나가므로 당시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다 짜고 나서야 너무나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완벽한 옷이 되고 그런 복잡한 색깔의 여러 실들이 없었더라면 그 무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입성시키기 위해서 신자에게 짜서 입혀가고 있는 예복에는 신자 본인이 계획 소망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질 것입니다. 각 신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그 신자에게만 어울리기에 다른 사람이 입어선 전혀 멋지지 않는 그런 옷을 지금도 뜨개질 하고 계십니다.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알 수 없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개별사건들의 의미조차 모릅니다. 신자로선 그냥 순순히 기도하면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다 그 옷이 다 지어질 무렵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사백년 전부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첫 열매가 이제 열세 바퀴 채 돌면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뜨개질로 치면 마지막 코에 매듭을 지어서 옷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게 짜였는지 보고 싶은 열정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외침으로 추측컨대,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는 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고 성벽은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 떨어진 진영에서 지켜보던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 나머지 백성들도 정말로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날만한 기쁨의 함성을 함께 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를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추한 것들이 진멸되어서 온전히 순전하게 바쳐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분별한 것에 걸맞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만 시선을 집중하면 앞뒤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불안 염려 초조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만 쌓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마찬가지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뜨개질이 끝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반드시 그려질 것이라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태가 끝난다고 당장에 더 풍요롭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 그 다음 다음으로 아무리 세대가 흘러도 이 땅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기어이 사백 년 뒤 후대에게 온전히 이뤄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신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 형통이 없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 궁극적인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와 정반대의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길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간섭하는 은혜로 우리 인생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만 해도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가 많았어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큰 사랑으로 내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形形色색의 씨줄 날줄을 엮어서 뜨개질 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 마지막 그림을 보기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선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럼 현실의 삶이 어떤 모습이던 간에 영적으로는 여리고의 오묘하고도 엄청난 승리를 매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여행에 내보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는 세상 사람들을 이리에 비유했다면 제자들은 양에 비유해야 논리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리는 약한 짐승을 포착하는 즉시 기습하여 삼키려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잡아먹겠다고 통보하고 또 급한 사정을 들어주는 이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복음을 들으면 크게 반발할 것은 물론 듣기도 전에 대적하며 증오부터 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양 대신에 뱀과 비둘기 둘에 비유하며 각각의 장점인 지혜와 순결을 다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상대가 그 메시지를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일단 들어보자는 생각이 들도록 대적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누그러뜨리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비둘기처럼 시종일관 온유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교적 영적 우월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따듯이 가당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둘 듯이 특정지역의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 기도하는 의도와 열정은 이해줄만합니다. 문제는 정작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현지인들로선 자기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종교적 침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 내면에 쌓여있는 사탄의 진은 더 완강해져 난공불락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명하신 선교의 두 원칙 모두를 어기는 꼴입니다.

어쨌든 이는 선교라는 거룩한 목표라도 있지만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땅 밟기 기도를 자주 이용(?)하는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 주변을 돌면서 기도만 하면 아주 싼 가격에 하나님이 사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혼자 새벽이나 밤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야하는 이사를 세 번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 부부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입각해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이 집이 꼭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팔리며 또 그 사람이 이 집에 입주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손해 보지 않고 만족할 만한 정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속히 최저의 가격으로 집을 사거나 최고의 가격으로 집이 팔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매매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을 산 세 사람이 다 저희 집 상태와 가격에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처음 집은 핸디캡 딸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방이 있는데다 마켓과 학교와 도서관을 혼자 걸어갈 수 있다고 곧바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집은 마침 대학교 캠퍼스 옆에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젊은 교수가 구입했습니다. 셋째 집은 뒷마당이 넓은데다 큰방 하나를 완전히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밀 수 있겠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실상 상대에게 바가지를 덮어씌웠거나 헐값으로 손해 보게 했는데도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적으로 빨리 응답해주었다고 간증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준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신자이면서도 상대를 교묘하게 속여 넘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장로니까 아무 걱정 없이 믿어도 된다고 큰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내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수 2:9-11)

이스라엘의 함성 한 마디로 여리고 성이 폭삭 무너지게 된 비밀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6)고 선언했습니다. 사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대로 행할 테니 아무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식언(食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더러 실제 전투로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 한 번뿐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을 깨끗케 해야 했고 또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세워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신자들이 일생토록 싸워야 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침공해 점령하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땅 밟기 기도는 더더욱 금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너집니다.(엡 6:17) 전도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의탁하여 복음을 온유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 전이나 하는 중에나 후에도 그 미혹한 영혼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무시(無時)로 기도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현지인들의 마음을 먼저 얻은 후에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영원성을 순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가 잘 되는 특정 종교적 형식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인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1-5)

사도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리 떼 가운데에서 전도해야 하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순전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된 자도 자신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은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한두 개의 개별적 사건이나 지금 당장에 처한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너무 단편적으로 한 문장, 심지어 한 문구만 그것도 문자적으로 읽고 치웁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의 특성대로 한국 신자의 신앙도 냄비처럼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수십 년간 믿음의 여정을 씬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지루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신자의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섭리를 성경에서 제대로 깨닫고 또 깨달은 바대로 삶에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껏 해왔듯이 넘어졌다 일어서기만 하는 일만 반복하면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냄비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리고 성의 승리를 잘못 이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냄비 신앙의 양태를 깨트리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